朝鮮日報
夕刊
本紙朝夕刊十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一流人物人選되야 政府側크게滿足

審議會및調查局設置에依한 首相의補强工作成功

【東京電話聯合】岡田首相이 補强工作을 行하야 設置를 急히한 內閣審議會와 調查局은 政友會의 反對와 其他로 一流의 人物은 逸選하는 態度를 取하야 그저 조흔人物은 엇기어려우리라고 觀測되드니 岡田內閣의 產婆役인 齋藤、山本、高橋의 三長老가 이組織에 加擔하고 特히 高橋藏相은 스사로 副會長으로 審議會의中心이되여 國策樹立에 努力하기로되여 齋藤、山本의兩長老도委員으로參加함으로 民政黨도最高幹部인 町田、川崎、富田의三氏를參加식히고 貴族院에서는 研究會의大幹部 青木信光子及同會의 有力者라고 할만한 馬場鍈一氏 公正會의大幹部 黑田長和男 民政系貴族院의 總帥라고할만한 伊澤多喜男氏等이 參加하야 實業界의實力者인 三菱系의 各務鎌吉氏 三井의池田成彬氏를 어드고 政友會는拒絕하엿스나 同黨의長老 水野鍊太郞及前衆議院議長 秋田清의 兩氏가 參加하엿고 더욱 望月圭介氏를 어드면 主流幹部를 除한一流의人材를 集合하게되엿슴으로 政府는 審議會의 出來榮에 滿足하고 此로써 補强工作에 成功하엿다하야 來十七日頃에 初會合을 開催하고 國策樹立에 邁進하기로되엿다

鐵相首相에게 政友會情勢報告

【東京電話聯合】內田鐵相은 十日午前九時四十分閣議前에 首相官邸에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望月圭介氏에 對하야 內審委員就任을 交涉한經過와 政友會方面의 情勢를 詳細報告하고 種種懇談을 거듭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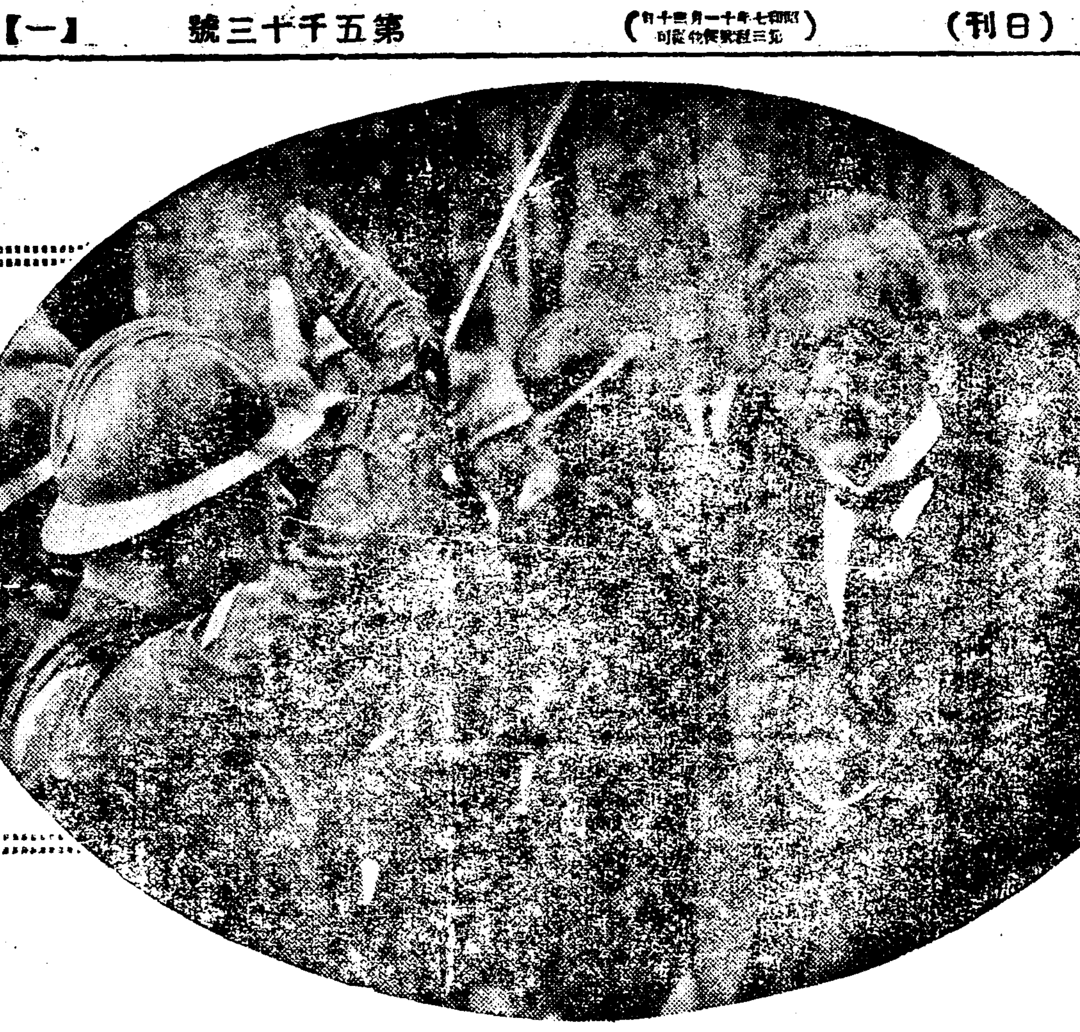
望月氏受諾貌樣

水野氏도離黨하야內審參加 政友會의基礎遂動搖

【東京電話聯合】內田鐵相은九日午後十一時五十分原宿自邸에政友會의長老 望月圭介氏를訪問하고 內審委員就任을懇請하엿다 望月氏는政友會內의事情도 잇슴으로 考慮하야 回答하겟다고 就任할 意思가잇다는것을 表示하엿슴으로 岡田首相은 十日午後望月圭介氏와會見하고 正式으로 審議會委員就任을 交涉하기로 되엿는데 望月氏는受諾하리라고 觀測되다

【電通東京電話】內田鐵相은 十日午前零時 原宿의自邸에 政友會長老 望月圭介氏를訪問하고 審議會議員受諾에對하야懇請하엿다

【東京電話聯合】政府로부터 內閣審議會參加交涉을바든 水野鍊太郞氏는 九日午後七時二十七分 九段私邸에 鈴木總裁를 訪問하고 同氏의 進退問題에關하야 重要協議를遂한結果 水野氏는 自己의 意見대로 內閣審議會委員을 受諾하엿슴으로 離黨屆를 鈴木總裁에게 手交하고 同八時四十分辭去하엿다 即同日의 會見席上에서 水野氏로부터 種種自己의 立場을 說明하고 內審入의 快意를 述하고 離黨屆를 끄집어내여 鈴木總裁에게 手交한데 對하야 鈴木總裁는 內審에 對한 黨의 方針은 이미 決定되엿슴에도 不拘하고 貴下가 今回와 如한 決意를 行하게된것은 甚히 遺憾이다 그러나 이러케된 以上은 不得하다는 旨를 述하엿다 그러고 水野氏는 政友會와 袂別하게되엿다



◇……羅馬到着의英首相과파시스트의歡迎光景……◇

定例閣議

委員交涉經過 岡田首相報告

【電通東京電話】十日定例閣議는 午前十時半부터 首相官邸에서開催되엿는데 旅行中인 大角海相을除한 岡田首相以下全閣僚가出席하야 먼저 岡田首相으로부터 內閣審議會委員의 交涉經過에 對하야

一、鈴木政友會總裁로부터서는拒絕回答을 接하엿슴으로 政府가 當初豫期하든바와가티 各政黨을 網羅치못하엿스나 그러나 練練한委員은 엇게되엿다 그리고 現在까지 諾否의 回答을 接치못한것은 伊澤多喜男 望月圭介等兩氏로 伊澤氏는 아마 受諾하리라고 信한다 그리고 望月氏도 同樣으로 受諾하리라고 思惟하나 萬一 望月氏가 受諾치못할境遇에는 十四名의 委員으로써 于先 審議會를 成立식히겟다

一、其他의委員은 齋藤子 山本男 水野鍊太郞等 各重臣長老及 財界로부터 池田成彬 各務鎌吉等兩氏가 電話로써 受諾한다고 回答이잇섯다 따라 伊澤 望月兩氏의決定을 보는대로 紙上閣議에서 審議會委員 調查局長官의任命發令을行할方針이다

라고報告하고 더욱書記官長의後任에 白根竹介氏를 起用하기로 決定하엿다는旨도述하야 諒解를 求하야 別項과갓치 人事를決定하고 同十一時半 散會하엿다

兩氏內審參加로 政友緊急總務會

【東京電話聯合】政友會에서는十日午後二時부터 本部에緊急總務會를開하고 松野幹事長으로부터 水野鍊太郞氏가 內閣審議會에參加하게되엿든經過와 望月圭介氏의委員勸誘에對한 態度에對하야 詳細한報告가잇고 此에對한對策及 政府의參與其他에對하야 政友會側에勸誘할境遇의黨의態度及黨內結束에關하야重要協議를遂하엿다

話題解說

英國의內閣과 政黨

英國皇帝陛下의 御即位二十五週年式典도 無事히 終了되엿슴으로 일즉부터 辭意를表示하고잇든 램세이·맥도날드英首相은 引退케되고 스탄리·볼드윈副相이 後繼內閣을 擔當케되리라는 外報의 傳하는바가잇다。現在의 맥도날드內閣은 一九二九年六月八日 第二回勞働黨內閣으로 出現하엿다가 一九三一年 英國經濟界를 襲擊하얏든 金融恐慌에 直面하야 이른바 맥도날드氏의 「光榮잇는 讓步」의 結果 保守黨과 協力하야 最近流行의 擧國一致內閣의 先例인 國民內閣(National Cabinet)으로 變化(一九三一年八月二十五日)한것이니 맥도날드氏의 이 光榮잇는 讓步에 對하야 어데까지 社會主義의 正統의 繼承을 主張하는 막스톤一派는 맥氏의 이讓步를 「背叛的行爲」라고하야 國民內閣을 支持치안케되엿다。이 結果 一九二四年에 英國勞働黨이 史上에 처음인 勞働黨이 議會內 絕對多數를 獲得하고 勞働黨單獨內閣을 組織하얏든 光輝잇는 歷史는 사라지고 맥도날드는 勞働黨으로서의 支持를 일케되야 겨우 十三人의 黨員을 가진 國民勞働黨으로 分裂한 一支持政黨을 가지게 되엿든것이다。이 結果 一九三一年 十一月의 總選擧結果는 保守黨이 絕對多數로되고 分裂된 勞働黨은 慘敗를 보게되엿다。그리하야 맥도날드首相은 國民內閣의 일홈을 조혼 看板에 지내지못하게되고 英國의 國政은 事實上、保守黨首領、스탄리·볼드윈氏및 副相 네빌·체임버렌氏의 左右하는 바되고、事實上 保守黨內閣이 되고잇는것이다。

望月氏拒絕時는 一名欠員대로任命發令

【東京電話聯合】政府는內閣審議會及 調查局設置를急히하야 審議會委員을 交涉한結果 十五名中 十三名을決定하고 伊澤、望月兩氏의 回答을기다려 마침내 閣議에서 決定하야 內閣調查局長官及 內閣書記官長의 任命과 갓치 上奏御裁可를 仰하야 左와如히 發令키로되엿다 그리고 政府는 伊澤多喜男氏로부터 受諾한다는 回答이잇섯스나 望月氏에對하여는 黨의事情等이잇서 受諾할수업는境遇에는 將來望月氏의就任又는望月氏에 代身하는人物을엇기爲하야 一名을缺員으로하고 十四名만을 任命發令키로되엿다

內閣總理大臣 岡田啓介
任內閣審議會會長
大藏大臣 高橋是清
任內閣審議會副會長
正二位勳一等功二級子爵 齋藤實
從二位勳一等男爵 山本達雄
從四位勳一等 馬場鍈一
從三位勳三等男爵 黑田長和
從三位勳一等 伊澤多喜男
正三位勳一等 水野鍊太郞
正三位勳一等 川崎卓吉
勳二等 富田幸次郞
正三位勳一等 安達謙藏
正五位勳二等 秋田清
從五位 池田成彬
正五位 各務鎌吉
任內閣審議會委員(各通)
從四位勳三等 吉田茂
任內閣調查局長官(一等)
從三位勳三等 白根竹介
任內閣書記官長(一等)

水野氏의處分에 黨內硬軟兩論

臨時總務會에서決定

【電通東京電話】政友會는 水野鍊太郞氏가 離黨屆를 提出하고 內閣審議會委員을 承諾한데 對하야 此를如何히 處分할가를 十日午後臨時總務會를 開하고 協議할터인데 黨內에는 水野氏는黨規를 全然無視하고 無斷受諾한것이아니라 事前에 黨을離脫한然後에 政府의 交涉에應하야 別로 黨이 를擾亂한 模樣은업슴으로 그대로離黨을 承認할것이다 라는 穩健論과 假令離黨屆를 提出하엿다고 할지라도 黨規를紊亂한것은 事實이다 特히 黨員으로서 審議會入을 禁止하엿고 此에違反하는者는除名한다고 言明한以上 今後黨規振肅上斷然除名할것이라는强硬論의兩論이잇서 果然어떠케決定될는지 그推移는 注目되여잇다

望月、水野氏離黨하여도 政友黨內不動搖

水野氏는超然、望月氏는黨內無勢力 反政府空氣만强化乎

【電通東京電話】政友會는 今回黨의長老水野鍊太郞氏가 黨을離하야 內閣審議會에參加하고 다시 望月圭介氏도 政府의懇請에應하야 此에參加하기를 承諾할模樣임으로 그러한境遇에는 當然脫黨하든지 黨規에依하야 除名할수바게업슬것이나 黨內에 相當한動搖를與하야 首腦部間에는 今後黨의統制에對하야 種種善後策을 講究하고잇스나 目下黨內에는 그리큰動搖가업고 特히水野氏는 從來로超然主義를가저 作黨關係도업고 겨우加藤衆四郞氏가特殊關係를갓고잇는以外에는 今回의審議會入이 全然齋藤子와 個人關係에 基하는것으로 特히黨內를 攪亂할意思는업슴으로 加藤氏로서도 何等進退를考慮할必要가업다 다만望月長老가 脫黨又는 除名이된다고하면 長老인만큼黨內에 相當한精神的影響을 及하리라는것은 免치못할것이나 氏도 岡田內閣成立當時부터 黨內에잇서서 勢力이全然失墜되여 最近에는 孤立的狀態에陷하엿슴으로 假令氏가 除名된다고해도 此에 殉할사람은 아마同鄉關係가잇는 一、二名에不過할터로 要컨대 只今直時黨內에는 큰動搖는 업슬것임으로 床次系와政府方面과 特殊關係를가진者도 多少잇슴으로 議會解散이라든가 總選擧라는 機會가 來到되면 이 長老들의 餘勢에對하야 非政友聯盟이든가 或은新黨樹立等의 計畫이 擡頭될것임으로 此에對하여는 充分警戒를加하야 極力黨內結束에 全力을 傾倒하는同時에 反政府의空氣는 一段濃度를 增加하야 漸次倒閣의氣勢를 加하게될것이라고 觀測되다

松野政友幹事長 望月氏眞意質問

【東京電話聯合】政友會에서는望月圭介氏가 政府로부터內閣審議會委員就任勸誘를밧고 同意한다는說이傳함으로 松野幹事長은十日午前十一時原宿私邸에 望月圭介氏를訪問하고眞意를質問하엿다 答하기로 되엿다

伊澤多喜男氏

正式受諾回答

【電通東京電話】貴族院의 伊澤多喜男氏는 거듭 後藤內相의懇請을 바더 審議會入을 受諾하기로 決定하고 十日午後四時首相官邸에 岡田首相을 訪問하고 正式으로 受諾한다는 旨를 回答

佛外相波都向發

【巴里九日發聯合】라발外相은 九日午後七時二十分 國際列車로 巴里를出發하야 왈소우로向하야 外交行脚途上에올랏다 라발外相은 왈소우에서 베크外相과會見하고 蘇佛相互援助條約締結에基하는 波蘭政府의 不安을一掃하고 다시 莫斯科에赴하야 스탈린書記長 모로토프人民委員會議長及 리트비노프外務人民委員等과 會見하고 佛蘇間의 親善强化를圖할터이다

히獨總統의要望容認 南阿委任統治返還?

英帝祝典에參列한南阿、代表로부터 英國政府에希望表示

【倫敦九日發聯合】信憑할만한側으로부터 確聞하면 南阿聯邦政府는委任統治領西南아프리카를 獨逸政府에返還할意思가잇다고傳한다

【倫敦九日發聯合】英帝戴冠記念式에參列키爲하야 倫敦에滯在하고잇는 南阿代表로부터 確聞하면 南阿聯邦政府는 히틀러總統의 再三要望에 鑑하야 西南아프리카를 獨逸政府에返還할意思가잇다고觀測되는同時에 英國政府가 委任統治領 당가니카를 獨逸政府에返還하기를 希望하고 近近헬초그首相이 非公式으로 맥도날드首相을訪問하고 首相의意向을打診하리라고觀測된다 最近南阿聯邦키로우國防相이 獨逸海軍武官에對하야 『獨逸政府가 植民地國으로서 南洲를復活함을希望에 接近하기를期한다』고 言明한事實이잇다 南阿聯邦政府는 人口三十萬에不過하고 그리고 廣茫八十二十二平方粁以上에 達하는 尨大한委任統治領域을갓고잇는實情으로마침내委任統治領의返還을期待하게되엿다고解釋되는一方英本國政府에서도 白人人口의太半이 獨逸人으로된 당가니카委任統治領을갑부게녁이지안는實情에잇고 獨逸政府를抱含하는 歐洲時局의 全般的處理를實現하는見地에서도 南阿代表의主張에 어나程度까지 傾聽하리라고豫想된다 헬초그首相의示唆가具體化되면 獨逸政府는 탕가니카에잇서 九十六萬平方粁의植民地를領有하게되고 더욱西南아프리카도 合하야 南阿東西에 橫斷하는 廣大한 原料資源地域을 確保하야 植民地國으로 復活하게될것이다 但히틀러總統은 植民地國確立의 條件으로 白人舊獨領의 返還을 要求함에 不過하고 一九三〇年 英國會議의結果 英本國政府가 自治領政府의 意見을 表明하기까지 南阿聯邦政府는 委任統治領에 對하야 何等行動도 取치안코 獨逸政府가 明確히 西南아프리카의 返還을 要求하기까지 正式으로 言明을 留保하리라고 觀測된다

植民地返還前提로 獨聯盟復歸를要求乎

【倫敦九日發聯合】西南아프리카 返還問題에關하야 英本國政府로서는 어데까지 獨逸政府를包含하는 歐洲政局의 全般的處理를實現하려는데서 植民地返還을前提로 于先獨逸政府의 聯盟復歸를 要求하리라고豫想된다

南阿代表部는 西南亞領返還提議

【倫敦九日發聯合】헬초그首相이 리베리나共和國統治를 獨逸政府에委任할것을 提案하리라는報道에關하야 南阿代表部는 全然意外인 感을抱懷하고 리베리나共和國의 獨立을無視한다는 見解에서 絕對反對하는 態度를表明하엿다 同代表部는 西南아프리카의 返還을 提議하야 獨逸政府의 植民地要求를滿足식힐意向이다

民世筆談 (七)

民衆深化過程 (五)

退嬰의由來와經緯 (一)

安在鴻

×

無何先生 足下

나는 上文에서 우리 歷史上에 三大對立 民族이 잇서 漢種族과 蒙古人과 및 海洋民族이 그것인것을 說하엿고 도리켜 朝鮮의 地形地理와 및 그 國際的인 政治地理와는 우리先民들의 統一的 大民族國家 完成運動에 결정으로 不利하든 情勢인것을 약간은 暗示하엿슴니다 그리고 우리 上代史上 最大한 事件은 그 久遠한 途程에서 最大한 角逐關係에 잇든 漢種族과의 對立에서 唐에 對한 敗衄으로된 高句麗의 沒落과 平壤城의 荒廢와 그 根幹人民의 摧折作用 그것이오 이로 因하야 大統一의 運動과 巨大한 意圖는 次第로 시들게 되엿슴니다 高句麗가 亡한後 二百年에 渤海가 다시 契丹(遼)人에게 覆沒되어 비록 成功은 되지 못하엿스나 그 興復運動은 오히려 數百年에 미첫스니 高麗太祖의 舊疆克服과 北朝鮮的統一計畫은 그 可貴의 勢ㅣ 잇슴을 因하엿슴것입니다。

×

그런데 朝鮮의 國風을 崇尙하는 獨立自尊의 派와 新羅의 統一期 以後부터 生長되든 漢化派와의 國內에서의 對立은 高麗仁宗時 妙淸鄭知常等의 西京遷都 稱帝建元을 永續自主키로하든 一派와 이에 反對로 金富軾의 一派의 政策으로 살든 金富軾의 內亂的衝突과 武力的 成敗를 보게까지되어 事實은 後者가 勝利하는 不幸한局面을 나타내이게 되것이니 이것을 一千年來의 最大事件으로 따지는史家가 잇는것은 理由가잇고 그러나 大蒙人의 氣魄은 上述과가티 蒙古人의 世界的 大侵略을 맛나 百戰抗爭의 途程에서 再現되엿스나 드듸어는 살(矢)이다하고 칼이 부러저 그들과 一時에 屈辱的安協을 하게까지된것이니 蒙古人과의 對立밋敗衄은 三大對立과 三大災難中의 그하나입니다 다만 오늘날 蒙古人은 大陸의드메속에 香이어지내어 僅僅七百萬 內外의 劣弱人民으로 다시當年의 意氣와面目을 몰수업는處地에 잇슴뿐입니다

×

蒙古百年의 侵略이 史上의 一大災難으로 그民族的精力이 크게損耗되고 다시倭寇의亂이라든가 海洋勢力北進의 고등으로 되어高麗王朝 覆沒의 原因으로 되엿는데 이동안의 崔都統瑩을 首領으로한 討元征明의 意圖와計畫을 가젓든 一派의運動은 마치妙淸一派의 復轍을 밟는듯이失敗하고 李太祖一聯의 新興軍備에 依하야 倭寇와 納哈出等의 討平이勸功으로 문득 漢陽朝 創成의 業을 보게된 것이니 實은 時國力이 疲弊도 하엿섯고도 親明自主 함들 그 得策으로 넉이게도 되어 鎖國孤立과尊明自保하려는 千古의 失策을 저질르게 되것입니다 이것이 또 近古朝鮮에 잇서 實은 衰亡史의 重要한 한劃期 라고도 볼것입니다

×

親明自護에 떨어나온 것은 朱子學의 尊崇입니다 朱子學은 一言으로 斷함이아니나 道佛의 思想을 攝取하야 그 思想의 精華를 꾸며스되 蘖漢以前의 敦厚를 버리고 스스로 繁易ㅅ차 排除하엿고 그偏狹한 論議과 學風은 假借寬容이업서 柳宗元 蘇軾 가른 人物들도 모다 小人으로 擯斥하는 類의 酷甚한 排他主義로된 者인데 唐宋以來 中國의 識者層은 前者는 牛僧孺 李德裕의 黨爭과 後者는 慶曆 元祐의 黨議로 因하야 或은 回紇人의 侵逼에 골病도 들고 그러찬으면 澶淵의盟 (契丹의 禍)과 靖康의役(徽、欽二帝가 全國에 俘虜로 잡혀간變)을 보고서 어찌할수업는 國家敗亡의 빌미를 열어둔者이라 漢陽朝의 鎖國孤立 尊明自安의 政策이 自然으로 現實을 游離하고 觀念의 獨自的 境地에 隱遁하야 人間眞率의 방울떠난 禮制 偏陂乾燥 無慈悲한 形式理論과 紙上定奪의 猛激한 末流에 닿어나 事實은 黨禍誤國의 必然의結果를 짓고 말은 것입니다 무릇 民族盛衰의 歷史의자취란 매우 明確하고도 또玄妙한 것입니다

八面鋒

◇ 二十八萬의 伊太利大軍이 地中海를건너 『에듸오피아』에 出動。

◇ 『勝敗在此一戰』의決心으로 에國에서도 七十萬의 總兵力을 動員하야 防禦에汲汲。

◇ 『로ー마』帝國을征服하려든『한니발』의피가 『칼타고』아니라 곳『에듸오피아』에 업슬것가。

◇ 『사라센』의 그뎃일을 생각하면 지금에 唯一의黑人國이란 얼마나 원통한일인가。

◇ 水野鍊太郞君의 政友脫黨內審參加로 眼鏡內閣에 一時凱歌。

◇ 望月圭介君까지 빠저나온다하면 三百의大政友會도 썩은등아옥。

부인약 益母草엑기스錠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튼튼히나어튼튼히길 읍시다건강한자녀는 건강한모체로부터 건강한모체는익모초엑기스錠으로부터

順帶下症、諸子宮病의徹底的治療와 產前產後의養生에 益母草엑기스錠은月經不順 一國의婦人聖藥으로確認된古今唯一의 男女를不拘하고 神經衰弱 諸冷病 消化不良에 特效가잇습니다

主効 냉병, 경도불순, 월경통, 하초허랑, 수족궐냉

帶下症 파子宮病에

月經不順

特約店募集

本舖 京城府公平通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六九三・電光一三五六

代理店 株式會社 新升藥房 京城南大門通

隨時男女學生募集

朝鮮第一自動車學校

自動車新法規及就業免許試驗用地圖發行、運轉手、助手、學生은必히一冊을 前金一圓三十錢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派出所六十餘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金銀高價

大邱中央通 大邱金銀商會 電話一三六七

第一回懸賞徵詩

一、詩題 芳草

一、期限陰四月末日以內

一、詩集刊發 一首金五十錢也

詳細事項函訊子盼

安東縣後聚寶街六三號

大東詩社

校舍擴張

(晝夜)商業實務校○本科三個月速成科六個月○就職確實、新學期開始

京城實踐簿記學院

タイピスト女學部

生徒募集

(學則要郵券)電車割引有●大平通大漢門橫入(電本三三九四番)

クボタの……

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日英米獨佛伊特許アークロ式

農林省認定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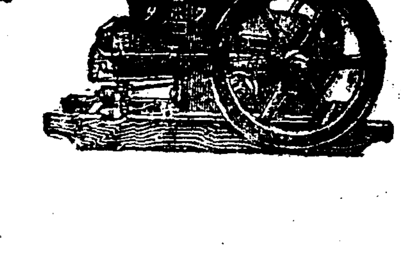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呈送獻文)

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朝鮮日報京城販賣所 電光二四九番

楚山對岸의大火災
百卅戶部落全燒
朝鮮人家屋五十、滿人家八十
人畜死傷은업는듯

【警務局着電】구일오후두시에 평북초산(楚山)서 관내 운해천(雲海川)주재소대안 외분구(外岔溝) 시외의 북방에잇는 조선인부락에 불이이러나때마침맹렬한바람때문에 조선인가옥오십호와 만주인가옥팔십호 합일백삼십호를전소하고 오후오시반에야 진화하엿는데 인축의피해는업고 손해정도와 화재의 원인에대하야는 방금조사주이라한다

路頭에彷徨케된 罹災貧民二百名
義州郡光城面麻田火災後報
面과警察署서救急

【新義州支局電話】속보=구일오후세시십분경평북의주군 광성면마전동(義州郡光城面麻田洞)중국인은전평(殷殿坪)의 집에서일어난불은때마츰 몹시부는바람에그 이웃집에 련소되야 삼시간에전소삼십구동반소삼동 무십오호를태우고겨우진화하엿는데불의원인은 전긔은전평의 굴뚝에서 난것으로손해는약마원가량이다 리재민은약이백여명으로 다빈궁한데다가모다가장즙물을하나도 건지지못하고알몸덩이만튀어나와 일시에는가두에 헤매엿섯다 리재민은면소와 경찰서에서 협력하야 그들의친척집과 이웃집에수용하고 구급비로두곳에서 구십원을내여 죽쌀을사서 그들에게배급하엿다 불에탄사십이동중조선사람의집이 이십오동 중국사람의집이 십칠동으로 이가티만흔호수가 삼시에 타게 된것은 『앙페라』 공장에 불이부튼것과 물이업서서 소방대의 활동이여의히안되엿까닭으로 십일아침까지아직도 탄자리에서 연긔가뭉뭉일어나고잇다 다행히 사람의사상은업고 도야지두마리가 타죽엇다

牙山郡下에火災

【牙山】지난칠일오후삼시에충남선학성역전(忠南線鶴城驛前)김모(金某)의집에서 발화되여 일호이동이전소되고 동오후 칠시에 진화되엿다는데 발화원인은 미상이고 손해액은오백여원에달하엿다한다

朝鮮語學會의 講演及月例會

시내수표정(水標町)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는명십일일오후삼시반에 동회관에서 좌기와가튼강연이잇슨후 계속하야 동회의월례회를개최하리라는데강연회에는일반의다수래청을환영한다고한다

一、演題 用言의語幹決定에關한問題
一、講師 崔鉉培氏

美展搬入終了 十三日審查發表

조선미술전람회는 그간 회장인경복궁(景福宮)후원의 회장에 출품작품의반입(搬入)을하고잇든바구일로마치엇다는데제일부가일백륙십이점 제이부가 구백칠십칠점 제삼부가일백십일점 합계 일천일백륙십이점으로 작년의 일천일백륙십이점의 증가를보이엇다 그리고심사는 십일일부터십일간인데 십삼일에 심사결과를 발표한다하며 개회긔간은 십구일부터 륙월일일까지라한다

選擧違反六件

【平壤】평양부회의원선거운동은맹렬을극하여 사십팔명입후보자와 오백여명운동원이 유권자의집을방문하고 야단법석을 일우고잇는터인데 그반면에는 선거법위반행위도 발서 여섯건이나적발되여 평양서고등계에서는 관계자들을 소환하여다가 취조를다치고 일건서류만 송국햇다 사법당국에서 엇더한 처치에나아올는지 문제시되며 압흐로경찰당국의사찰은 심각해질것갓다

國際列車衝突로 死傷者百餘名

【哈爾賓九日發聯合】구일아침합이빈(哈爾賓)역을 출발한 제륙국제렬차가 오후세시십분에 석두하자(石頭河子)구내에서 제삼백 이십이호화물렬차와정면충돌하야국제렬차의 객차네개가탈선되야 승객여덟명이 참사하고 중상자사십명과경상자 륙십명이낫다

一道一校目標로 女子高普校增設
明年엔新義州、大田에

금년사월까지에 전조선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일곱곳밧게 업든바 금년사월에라남(羅南)에 신설되고오월에는 함흥(咸興)에 신설되야 함아홉곳으로되야 평북충남충북 강원도의네도를 제하고는 구개도에한학교씩 설립되엿다 그럼으로 학무국에서녀자교육의 확충책으로 각도일교씩의완성을 도모하고저 남어지각도의 설립계획을극력알선하여 오는중이라는바 명년에는 평북에서신의주(新義州)와충남대전(大田)에 신설할것은 이두곳이다 구체적계획에 착수하야긔부금을 모집하게쯤 되엇고 래명년도에는 충북의청주(淸州)와 강원도의춘천(春川)의 두곳에 신설하야 십이년도에는각도일교를 완성할터이라한다 그리고 립조년에는 예산편성의 시긔관계로 보조금을지출치못하고 그다음해부터 지출하게되다한다

(寫眞은入場式光景)

霜災끄테旱魃繼續
高原地帶麥作全滅
도야지밥도못먹는것이만허
慶北春陽에春窮滋甚

【春陽】저난일월부터 나린는눈과서리로인하야경북춘양일대의맥작은 거의전멸상태인데 오월부터는 일긔가혹독히도거워지며 비한방울보지못한때자이불의에류질의 과 흉사한흉양에 전부타죽어서이중산동으로 전재를당한 태백산계(太白山系)고원지대 농민은 창천을우러러원망하며통곡하는광경은 참아사람의 눈으로는 볼수업는바덕구(德邱)천평(川坪)학산(鶴山)등지에는 부황자가날로 증가하는중이며 구제방칙업는 이들은사라갈길이 아득하다는데그들의유일한량식은도야지먹는 댕가루를 먹고사는데이것도오늘두륙전이란돈이 업서서 그대로 굶는가정도 만타고한다

電車內에스리

포천군영중면금주리(抱川郡永中面金珠里)구백번지 윤태순(尹泰淳)(四二)은 구일오후다섯시삼십분청량리(淸凉里)에서 동대문으로향하는 전차를타고오든중 스리를맛나 현금일백칠십원을 이러버렷다한다

平南道農村에는 井水枯渴이八割
各地에서食水騷動

【平壤】과록적장긔간의대한발로평남농작은 전연비관에 빠지어서인심은극도로 흉흉한터이다 구일평남농무과와위생과에도착된각군당국의 보고에의하면 중화(中和)대동(大同)강서(江西)강동(江東)안주(安州)평원(平原)등각군부에서는 우물이 팔할(八割)이상까지가 완전히 말라 음료수가 떠러저이、삼리밧게까지음료수를구하러래왕하고잇스며 어떤 부락은림시음료수가잇는지방으로향하여이동을 개시햇다고 한다 춘궁기로 식량도업는터이데이야말로 설상가상으로 음료수찻차 떠러저그참상은 형언키어 려운바잇스며 각지방 우물가에서는 부녀자들의 물싸홈、논가운데서는 농촌장정들의 물싸홈까지폭발하여 강우이나신경이 예민해진농촌의 공긔를한발이 가일층예민케만드러 금후무하지안흔 불행이이러날 념려도업지안허 경찰당국에서는 경계를개시햇고 금후삼십미리이상의 강우를 보지안는다면전반도내의 우물은전부 고갈될것은물론、농작물은전멸절망상태에직면하게되여 도내전반에는 우울한공긔가 충일해잇다한다

少年審判所와 矯正院豫算
明年度五十萬圓要求

법무국에서는 명년부터 조선에소년법(少年法)을 실시하고 소년심판소와 교정원(矯正院)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관한예산편성을 금년가을까지에 하기위하야방금립안중이다 소년법의 실시와 소년심판소와 교정원의 설치에대하야는 사법관회동(會同)에서 대체 찬성을어덧고 또소년범죄자의 특수취급에의한 사회정책적효과를 엇고저 명년부터 이것을실시할터이라는데 재무국의량해를 주문히구한다 소년범죄자를 소년심판소에 송치하면 그곳에서심판한후 그정상에의하야 교정원에수용하며 또는소년형무소에수용하게될것이라한다

請負業者無理暴行
勞働者卅名重輕傷
畢竟亂鬪請負業者側도廿名負傷
咸安洑工事場流血劇

【咸安支局電話】지난구일오후세시에 함안제일수리조합보(洑)공사장에서 청부업자와 인부사이에 류혈의란투가 일어나서 쌍방에부상자오십여명이나 나서 현장은수라장을이르엇다 원인은 전긔보공사를청부마튼 서본조(西本組)의하청부(下請負)인 정강(政岡)의공사장인 대산면산서리(代山面山西里)양수장(揚水場)부근에서 동면서촌리(西村里)의 로동자 삼십여명은 예정가격세이마구리 오후여덟시까지 로동할임금을 칠십오전식주엇섯는데 칠일 오전열한시경에 공사장에서 흥분한하는긔괴차에 고장이생기여 감독자의지도대로 인부들은 충실히종업하얏슴에도 불구하고 전표를『잉크』가업다는 구실로 전표를아니주고무리하게돌려보내다랑녀의 수해로 생명과재산에 위협을밧고하도라도 버리를하지안흐면 먹을것이업는 로동자는 의뢰로전표를공사장에 출의하야 전표를청구하엿더니 의외에도 보통임금을 채동하약스코프와 단도(短刀)등을들고 폭행을가하고、서촌리의 인부들에게도 폭행을가하야대 수라장을 일으켜 류혈의참극을 연출하엿다 청부자측의부상자는 약이십명이고 로동자측의부상자는 삼십명인데 로동자측팔명은 인사불성이되어 당지공제의원(共濟醫院)에서 응급수당을바닷스나생명이위독하다한다 서촌리(西村里)청년안치구(安致九)외십명은 공사장을 방문하고 질문하엿더니 하고 그들 강조(姜祚)에서는、이십여명

十五日封切豫定
未完成交響樂
몬푸랑의王子
(痴人의사랑)
團成社

塔洞公園에灌佛大祭

석존탄생의이천오백일년을마지하는 금년의 관불제(灌佛祭)는 십일시내각사원에서 성대히거행하얏는데 오전십일시반경부터 시내수송동 각황사(覺皇寺)에서 불제자들이장사의행렬을지어 긔행렬을거행하고 오후한시부터 원각사(圓覺寺)탑터인 파고다공원에서

運動競技

普專主催의 中等蹴球 今日부터開幕

普成專門學校主催의 第八回全朝鮮中等校蹴球大會第一日은 이온고 今十日午後一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다 昨年度優勝校培材高普를 비롯하야大東、徽文、徽新、普成、中央、青學等七個校九十餘選手의 入場式이잇슨後 同午後二時부터 大東商業對青年會學校의 第一回戰으로부터 競技의幕이열리엇다

世界拳鬪王 『베어』選手負傷

【뉴-자-씨州九日發聯合】世界拳鬪界의霸王『맥스·베어』選手는 九日뉴-자-씨州의練習場에서 라듸오放送練習中 不幸히도負傷하야 病院에入院治療中인데 醫師의말에依하면「心臟의上部를 空氣의火藥으로負傷하엿다」는데 原因은未詳이다

氷上의偉人 헌베르그氏 東洋訪問을希望

世界氷上競技界의偉人 헌베르그氏(芬蘭)는 일즉부터 東洋訪問을希望하고잇섯는데 五月三日「헤르싱기」駐在 日本公使館員을 通하야 日本氷上競技聯盟에 競技를懇請하여왓다는데『헌베르그』氏의 通信에 依하면 一九四〇年世界올림픽을 마즈막으로競技生活에서 隱退할터이라는데 日本氷上聯盟에서는 明春獨逸「가르미쉬」에서 열리는 第四回冬季올림픽에 出場하기때문에 今年度에는 招聘될것이나 올림픽終了後이면 金正淵選手와함께 日本에 招聘할計劃을 가지고잇다한다

猶太人올림픽 陸上에米國優勝

第二回國際猶太人올림픽競技會는 四月二日부터『파레스타인』의『맥카비』競技場에서行하바 第一日은 四八의國家이모인곳에서 三十個國의選手들은 國旗와青白의『씨온』旗를先頭로 步武堂堂히入場式을마치고 뒤니어競技를 開始하엿는데 『나치스』의나라獨逸에서參加한選手들은 國旗와『씨온』旗도들지안흔것이 注目을이끌엇다 五日間에亘하야 各種競技를行하엿는데 米國이二百五十四點으로 第一位를占하엿고 第二位는英國이오 波蘭、『파레스타인』、오-스트리아、『체코』南阿의順이다

南加州大學勝 對加州陸上競技

米國陸上競技界의 雙璧加州大學對南加州大學對抗競技는 지난四月六日에로스안젤스(羅府)의競技場에서 擧行한바 結局七十點六分之五對六十點六分之一로 南加州大學이優勝하엿다

雞林俱樂部主催 新人卓球大會 五月下旬開催

雞林卓球俱樂部主催와『스팔라』運動具店後援의 第二回全朝鮮新人卓球大會는 來五月下旬 府內에서開催할터이라는데 이번大會에는 各種大會의優勝者는 出戰을禁하기로되엿다하며 參加希望者는 鐘路『스팔라』運動具店으로 參加金三十錢을添付하야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女學校등지고 金비녀詐欺

딸일오전십일시사십분경에 시내화천정(和泉町)십팔번지 리재신(李在信)이가 경영하는시내남대문통(南大門通)사정목 륙십륙번지금은상에 자칭리화학교(梨花學校)소사라고하는 사람이와서지금 리화학교 서양선생이귀국선물로써 가저오라다고하며 시가 칠십사원짜리 금비녀한개를주인과 가려자지고 리화학교문까지와서는 녀학교는문안에 들어갈수 업슴으로 잠간기다리면대금을가지고 온다고한후 아무소식이업슴으로 리재신은 그제야의심스러워서 학교에들어가물어본즉 그는엉뚱한 도적이엇든것이 들어낫다 서대문서에서는방금범인을 엄탐중이다

集會

明大同窓會
▲時日 五月十日下午五時
▲場所 市內明月館
▲會費 金貳圓也
▲發起有志 金炳魯 李仁 玉璿珍

天氣豫報

晴一時曇

低氣壓은 黃河下流에 七百五十二미리 樺太에百五十미리를보히고高氣壓은 日本東海上에 七百六十미리를 보히고잇다中部는흐리고 其他는日氣가조타 氣溫은 全州의二十度와 中江鎭의二度間에잇다 明日도흐린다

昨日最高 二十四度六
最低 十一度七
今朝最低 十四度六
今日正午 二十四度六

失踪中의船員 五名이生還
屍體도六個를發見

【仁川】칠명의 사망자와 오십명의 행방불명자를내인 인천해조난사건은 사건즉시 참상을속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소관인천서에서는 관하각서와 부근각도에 시체륙수배엄탐한든중 지난 십일까지 소관서에도달한 정보에의하면 다음과갓다한다

一、行方不明中死體發見者
富川郡德積面昇鳳里 閔和元
同 黃東煥
同 姜昌宗
同雲興面伊作里 金春基
同德積面昇鳳里 裴昌厚
同 鄭玉順
一、行方不明中無事生還者
富川郡德積面昇鳳里 申明洙
同 金昌國
同 姜昌煥
同 裴貴根
同 申相民
一、沈沒砂利船
富川郡德積面昇鳳里 裴貴根
同 金昌德所有船二隻
一、無事歸還한砂利船
同 [illegible] 申命洙 姜昌煥 所有船二隻

新發賣
第四六〇號 金六十圓 (二重モーター附)
高級性能器의 標準普及型이다
●全面總磨出し仕上げ
●金屬部クローム鍍金加工
●木製長音道裝置
●强力スプリング二重モーター
最寄의特約店에試聽하시라
製造發賣元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コロムビア蓄音器

콜럼비아 大衆盤 리-갈레코-드
창부打鈴 一枚八十錢 張一朶紅

一枚로二大傑作
青春打鈴
공공打鈴 高一心
人氣白熱化!! 姜弘植
콜럼비아레코-드

家庭經濟 現金進呈
를爲하야理髮具一組를備置하시라
面刀는얼골안상하고便利하며安全한安全面刀
東京芝區田村町二ノ三 十文字製作所

蔘葺精
新藥의强壯精 强精强血補
蔘葺精은벌서世界的으로進出한다
健康體에病魔는接近치못한다
適應症
發賣元 朝鮮商會 京城府授恩洞三二

小兒잇는家庭에常備藥
嬰兒丸
肝氣、乳滯、青便에特効藥

나로나

끼리하자여

저의연인을 어머니는반대

問 저는 금년에 삼십세된 미혼남자입니다 저의가정은 투텁어 박약하야 엇던재산은 다 업서지고 지금 잇는것조차 저당을 잡히고 잇습니다 그런데 겨우 사진업을하여 생활을 하고 잇는데 저는 지금 삼년전부터 어떤 여선과 잠뭍 열정적 연정을 바치고 잇섯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 두사람의 사히는 조금도 변치안코 잇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여자와 결혼할것을 반대하오니 어찌하면 조흘니까? 리일 그이도 내가정이빈곤하고 저도그이를이별할수가 업건만 단하나의 어머님이 이를 반대하니 참으로 고롱이외다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리유는 그가정이 조치못하다는것이고 그여자가 마음에 들지안는다는것입니다. 그러하야 나는 어머님의 강부한말슴에 그만 그여자를 단념하기로 결심하엿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알고보니 그녀자는 나와 육체적 관계가 잇섯는데 지금 업신 삼개월입니다 아-모든 그 녀자의 몸에 잇서도 나는 어머님의 말슴을 좃츨가요? 어찌할가요? 가슴이 답답하오니 해결책을 강구하여주시십시오 (高陽郡 一讀者)

더한번양해를구해 속히결혼하십시요

答 부모에대한 효성은잇서야하지만 결혼에잇서서는 부모의 말슴을 들을 필요는업습니다 물론 결혼이 중대한것이니만치 경험만흔신부모에게 상의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시대가 다르니만큼 부모와 자식간에 그결혼대상에 대한 견해는 아-조 천리로 격하엿든데 하물며 당신은 지금 그 녀자와 의하면 처녀의 정조를 유린하고 임신중인것을 귀히로 어머님이 반대한다고 하는것 갓습니다 그리다가 그여자가 임신중이라니까 할수업시 가해를밧고 이것을 써보내주시이나 아닙니까?

가정이 조치못하면 그주위에 자라는 그자녀도 영향되지 안는것은 아니나 꼭 그러라고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이를사랑하고 그이는 처녀의 고혼몸까지바처 사랑한다면더구나 임신중이라면 어머님께 양해를구해 결혼하십시오 (一記者)

셧부른짓에 동티 전기(電氣)는 알고쓸일

생명과재산을위협하는감전,루전 알고 모르는 차이는어떤가?

어떠한문명의 리긔(利器)든지 거긔에대한 지식이업스면 도리혀 우리의생활에 일종의 위협을늣기는것입니다 그 례로서가장적절한것은 전긔에 대해서입니다. 감전(感電) 루전(漏電)등의 우리생명과 재산을위협하는 무서운작용이잇스면서도 오히려 전긔는

현대에 잇서서

모든문명의 왕자가되여잇습니다 그럼으로 여긔에대한 상식적이나마 맷개의간단한 주의를말슴해드리겟습니다.

×

첫재주의할것은 넘우 큰긔구를쓸것이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설계의도수를넘친 큰긔구를쓰는것은 위험한것이니 가령말하면 전등선(電燈線)은 대개오백「와드」가량밧게 쓰지못하게 설계되여잇는데 그것을모르고 一「키로왓트」나 三「키로왓트」쯤 되는 전열긔(電熱器)를쓰다고하면 전선을통하는 전류가 넘우강한때문에

전선이다러서

심하면 전선을 싼고무와실로짠것이라고 화재가이러나기 쉬운것입니다 그럼으로 항상 그설계에적당한 전열긔를쓰는것이조흘습니다.

다음으로독「퓨-스」(납줄)에 관한주의를 이야기하겟습니다 이 「퓨-스」라는것은 안전긔라고해서 방안에단 전선의 이어맨점이나 벽에붓터잇는 동그라사긔로맨는것속에잇는것인데 이것은 전선의 굵고 간은데맛추어서 장치한것입니다 그럼으로혹 잘못해서 전선에과도한 전류가 통할때에는 그것이 곳 녹아버려저서 전긔가끈치고 전선이란다든지하는

화재갓흔것을

마연에 방지하도록만든데노흔것임으로 서투른사람이 마음대로 그것을 굵은것으로밧구든지 철사로가려꼿는것갓흔것은 매우위험합니다 그럼으로 혼히 전긔를만하하는것위에서 마음대로 전긔장치에 손을대이는사람이잇스나 아주 그내용에대해서 능통하다면몰나도 그렇지안코 섯투른사람갓호면 이런한일은 매우 주의하는것이조켓습니다.

그리고 낫분긔구를쓰면 누를도적고

수명도 짤은것

이니 될수잇는대로는 조흔것을 골나쓰는것이조켓습니다.

그리고 취급상으로 주의하십것은 전열긔구갓흔것은 한번산뒤에는 반드시「스위취」를끈허두는것이조켓습니다 흔히「아이론」갓흔것을쓰다가「스위취」를 끈치안코바가게를가는 보려나갓다가오면 방바닥을태우든지 또는 화재를보든지하는수가잇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긔스톱을끄고자기는어렵고 그냥자기는 넘우밝다든지 또는전구(電球)의열(熱)을 열라는것이아니가해서 흔히 잘때에재보나 수건갓흔것으로서

전구를싸서

자는수가잇스나 해보다 위험한 흔한것은 전구를 오래싸두면다는것임으로 매우위험한것입니다.

그리고 감전(感電)에대한주의로는 전긔는 금속물이나 물에 저주지어나 소금스긔이잇는 물건에잘옴기는성질을가지고잇는것임으로 물에저진손으로는 될수잇는대로전선이나 전구에대이지안는것이조습니다 그럼으로 이와갓흔 리치이지마는 목욕탕 연돌에전선이다으면 목욕하는동에감전을하는수도잇습니다.

아슬아슬한재조

지금은 저세상의 사람이된 그유명하든 영화배우「론·차니」의 생존중에 위험한연기는 끌나가면서 공연하든 작란분 「후랫드·테라인노-트」 인제는 나히도 칠십만한때가 되엿것마는 아직도 위험한짓 이라면 정신을채리지 못한답니다. 사진은 최근에 그분이 「로-라-스케-트」를 동에지고 공중재조를넘는 광경인데 석달전에 이짓을하다가 부상한일도 잇다건마는 그래도 정이안다스고 벽걸롤굴의용감한태도로 서련습한결과 지금은 아주백발백중의묘기를 보혀준답니다

家庭婦人協會總會

시내인사동 태화녀자관(泰和女子館)안에잇는가정부인협회의 총회가 오는십일일(토요일)오후두시부터 동회관내에서열리라는데 회원되신분은 물론참여하시야 되려니와 새로인회하실분도이날 오시기를바란다합니다

라디오

十日(金曜)

◇午後六時 童話 炫光明王의慈悲 金泰洽
◇同六時二五分 家庭講座 어머니로서어머니에게(一) 金善惠
◇同七時三〇分 講演 釋尊의眞理와人類의文化 中央佛專學監 金敬注
◇同八時 釋尊聖誕禮式
◇同九時 音律 靈山會像 玄琴 李彦植 洋琴 李承煥 笑琴 池龍九 短簫 洪斗憲 細笛 趙

十一日(土曜)

◇午後○時五分 管絃樂(레코-드演奏) 一、行進 二、勝利 三、幸福의나라 四、讚旋·救世軍育兒院밴드 指揮 W·E노-벨
◇同六時二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六時三〇分 家庭講座 어머니로서어머니에게(二) 金善惠
◇同七時三〇分 講演 善女人과供養 朴允進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國名山 李東伯 鼓手 韓俊成
◇同八時三〇分 피아노獨奏 一、序曲 二、聖序曲 멘델스손作曲

十二日(日曜)

◇午後○時二〇分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對野球聯盟리一戰—東京으로부터—
◇同六時○分 童話 어머니 金牧星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吳基先
◇同七時三〇分 講演 交通安全週間을當하야 京畿道保安課長
◇同八時 時調外三曲 一、時調 二、平調歌 三、 四、달거리 金蓮玉 趙牧丹
◇同八時三〇分 俗曲 一、山念佛 二、寒透歌 三、密陽아리랑 四、사발가 五、노래가락
◇同八時五五分 名曲鑑賞(레코-드演奏) 朝鮮音樂家協會 管絃樂 指揮 一、火鳥…스트라빈스키作曲 二、胡桃거組曲 解說 金메리

曆

五月十一日(土) 舊四月陸 辛巳(小)九日
丁亥·土·女·破
●破屋에宜함
▲立夏 六日(舊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舊四月二十日)

바람부러먼지날때 눈을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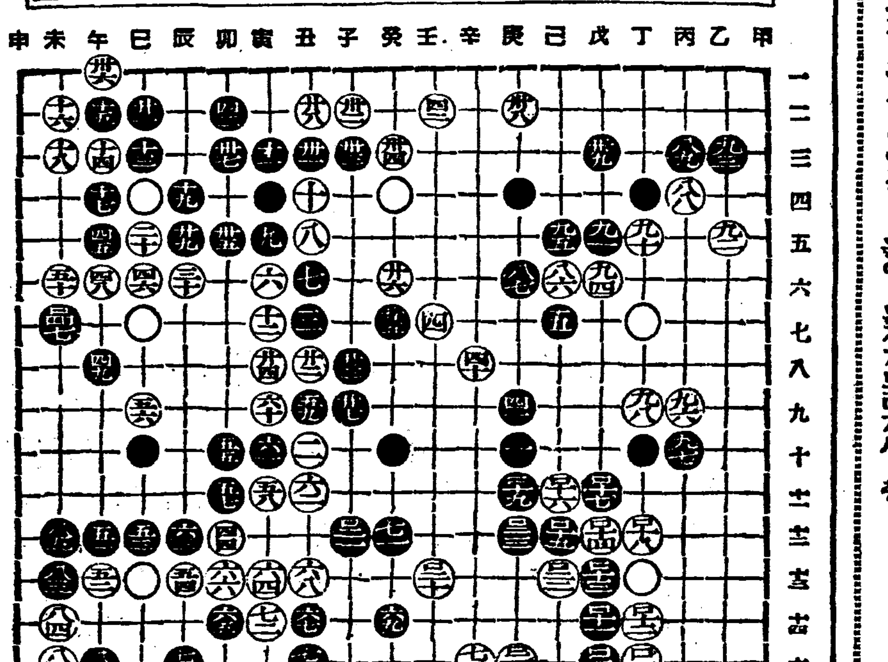
외출하고도라와서는 반드시눈을써습시요

어제 ○○○○에서 열가 연대형으로 곳 봄사츠를 난유치원우회는 여러분의 의사(本社囑託醫師)이시고 성원으로인하야 별보와갓치 민중의원 안과주임으로계신 대성황을이루은것은매우감 경긔헌(景基憲)씨에게 그간사합니다. 단한 치료방법을무러보앗습니다. 그러나 당일에 바람이 넘우강하게부러서 몬지가만히 이러낫음으로 혹 귀여운애기들의눈에 몬지가드러가서 충혈이되었든지 눈시병이낫을 다음은 그분의말슴을 그대로 적어서드리는것이니다.

★ 눈에 몬지가드러가서 충혈이 되엇다. 그러고 상하면 안과전문의사의게 치료를밧는것이 제일조흔데 대개쓰는약이 일정하지는아니하나 二「퍼센트」의 유산아연(硫酸亞鉛)을 눈에넛는것도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깨끗한증유수(蒸溜水)로 정제(精製)하기가 일반가정에서는어려우니까 아모래도 의사의의울쓰는것이 제일안전합니다. 그러고 될수잇는대로 눈을 부비지안는것이 조흡니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8)

白 丁奎春 / 黑先 高濟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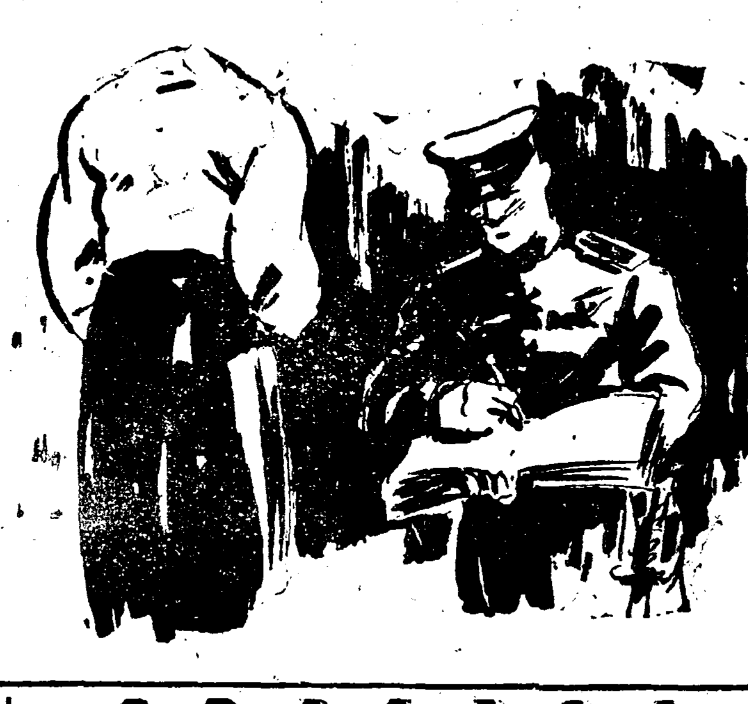
【●一一三】戊의十三 【○一一四】戊의十二
【●一一五】己의十二 【○一一六】己의十一
【●一一七】戊의十一 【○一一八】丁의十二
【●一一九】庚의十一 【○一二〇】壬의十三
【●一二一】子의十二 【○一二二】己의十三
【●一二三】庚의十二 【○一二四】庚의十五
【●一二五】辛의十六 【○一二六】壬의十六
【●一二七】辛의十八 【○一二八】壬의十八
◎死 點 【○一二六】己의十一

蔡極文氏評

黑이 汗漫이 戊의十三으로 이 危險을 彌縫치못한은 遺憾이다 試하고 己의十三으로 斷하고 辛의十三으로 彌縫하엿스면 白 庚의十五點은 打拔不得할것이다 黑後手을 斷하고 庚의十五로 黑隙하지라 白 庚의十五點은 打拔不得하니 危如累卵하니 局中滋味는 正合局上關이로다

유-모어小說 望夫石 (七)

金熊超 作·畵



三寒四溫 (七)

는 어제빼라노앗든 와이샤쓰와 카라에 풀을매여서줄에널고 막 방에 드러와쓸때다. 마당에서덜걱 덜걱, 저벅저벅소리가나드니 「여보시요」한다.

세숫수건에다 손의물기를 홈처면서 명례는 뜰리구녕으로내다보앗다. ——시컴언 복장을한 순사가 울두려운 누-런책을들고 두리번 두리번하면서마루아래와 서잇다.

——호구조사를 나온모양이로군! 하고 명례는 마루로나갓다. 죄지은일은 업건만 까닭업시 몹길한생각이도라간다.

——순사란 죄인에게만따라다니는사람이거니! 하는 막연한생각이 평소 머리속에 잇섯든까닭이다.

「딸시덥버지?」

「네」

순사는 번지부러 떠겻다.

명례는 간신이 나오는말로대답을햇다. 호구조사가 이번이처음이 아니요 그동안에도 몃번이엇스나 대개는남편이집에잇슬때라 몃마듸못고 대답하는것만보앗지 무슨말을 뭇고 엇더케대답하더라——하는 기억은 도모지나서지를 안엇다.

——나한테는 무슨말을 무르려노! 하고 생각을하니 명례는 겁도낫다.

「호주가 누구요」

「나애요」

「당신이 호주요?」

매우이상하다는듯이 순사는마루끄테 두딸을 모으고서잇는명례를 힐끗처을려보앗다.

「이름이뭐요」

「김명례?」

순사는 굵다란만년필로 책장에꼬인 하얀조히에 쇠금시사하나를 휘가길드니 멈칫한다.

「밥물명시자 례도례시자애요」

순사는명찌한자를 도쓰고 어물어물한다. 참아터못지 못하는 눈치.

「례도례시자?」

「경례란 례시자말어애요」

순사는그제서야 마저썻다.

「식구는몃이요?」

「나까지 단둘이애요」

「한사람이름은?」

「박재홍. 시를시재짜, 호정호짜애요」

이번에는 수제글시자까지 다 일러주엇다.

「무얼하는사람이요?」

「회사엣다녀요. 고려흠사산회사요」

「그럼——. 당신과 엇케되는사람이요?」

순사의 어조는 약간지장한듯하엿다. 명례는라고 무어 대답을햇스면 조흘지 얼른제각이안도랏다. 그래나 당장에 누구된다고 들라대실수도업서서 바른대로대답아니할수업섯다.

「남편이애요」

「남편? 박재호가 남편이되단 말이지요」

「네」

「그럼——, 어째서 박재호가호주가되고 당신이요?」

「그이는 놀도라다니고 집안에 잇는일이 별로업스니까 내가 호주지요. 살림사리는 내가 마터하니까요」

이러케나 퍽거레보앗다.

「그러라고 호주가 바귀는수도 잇소?」

순사는 다시한번 명례를 치올려보앗다

——트레머리는 헤가지고, 오양은반반하면서 왜이리 숙맥이냐! 하는드시 똑바로뜬 두군시동자는 비웃다못하야 사팔뜩이가되고다.

명례가 무안해서 아모말업는 동안 순사는 여지껏쓰든 조히쪽을쑥빼어 손아위더코 꾸겨버렷다. 그리고는 다른것을 가라끼엇다. 비록 일본에서만 쓰는 명부록일망정 호주라는지위로큼직히한자리를차지하고 적혀잇든 「김명례」석자는 여지업시말ㅅ살이되어버렷다.

명례는 호주라는것이 무엇이다 하고 또렷이드러나게 알지는못엿슬망정 순사가 생각하듯 그순히 경찰서와 경성부를 한롱ㅅ속으로알고 허천가 남편에게 려케판판히 모르지는안엇다 단드른바는잇서서 남편을호주로내세웟다가 세금이나 더 물지안을까 념려햇슬뿐이다. 말하자면 지나치게안전도 변이지만 망신스살이빼치느라고 섯불리안것이 명례에게는 더번이되엿다. 그리고 자기남편을호주로 내세우지 못한데는 또한가지 리유가잇는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잇해동안이나 재호와 가치사러오지만 여지꺼ㅅ 재호네집민적에 오르지를못한까닭이다. 그래서호인신고를안하면 법률상으로 부부가 못되는줄도잘아는동시에 지금처럼 호주조사가나왓슬때 부부아닌것을 부부라고햇다가 나중에 무슨일이나지안을까——누려웟든까닭이다.

순사는 새조히에 다시이름짜를고처적고나서 원적이 어데냐 생일이언제냐하고 못고적고하드니 마지막으로 「결혼은 언제햇소」한다

기미가요
白毛染 赤毛染
君が代
婦人은爲先白毛染
髮의化粧은君が代로
君が代는
엇더한白髮이나赤毛라도 곱게물들고감기쉬우며 오래가며털이상하지안니다한번試用하야보시요
德用二十錢
全國藥店에잇슴니다

春情에淋疾 네오지린 ネオヂリン 먹고웃는얼골

●學校의成績● 은頭腦가第一이요 머리가무겁고 아프면 노-신 ノーシン
가볍게明快해지오 ◆工夫◆

五月八日大興行
○松竹키네마京都下加茂作品 時代劇 鞍馬天狗 疾風の卷 監督 二川文太郎 坂東好太郎主演
○MGM社特作全發聲日本版
봄불노리
戲曲 黑太陽 全三幕
仁寺洞 電光二七六 朝鮮劇場

五月八日封切 毎日三回
사랑의一夜
어느날밤 생긴일
生門死門
團成社

五月十日브터大公開
八軒夜店 全七卷
鐵蹄猛襲 全六卷
路傍 全八卷
桃花劇場

品質本位
花王石鹸 가오비누
살결을어엽부게한가오비누!
婦人의살결은銳感的입니다, 손결이납부면 피로하야서, 血色이납버집니다.
살결미와健康을爲하야 가오비누로언제나깨끗이씻처주십시요.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有名百貨店雜貨店에잇슴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MK 272

京城古蹟小巡禮 弘化門의美 ②……湖岩

弘 化門은 近年夜櫻으로 有名하게된 昌慶苑의 正門이다 昌慶苑은 李朝初의 壽康宮으로그後 成宗때 다시 이壽康宮基址에 昌慶宮을 新築하니 지금으로부터 約四百五十年前이다 이宮이 壬辰兵火에 타버리고 오즉 遺存한者는 正殿인明政殿明政門및 弘化門이어서 그리하야 光海때 再建하고 純祖때또 再建한것이 곳今日의 昌慶苑이다 弘化門은 明政門, 明政殿과 아울러 成宗때創築한 그대로남아잇스니만치 各宮門中의 最古建物이다 昌慶宮의 前身인 壽康宮으로말하면 그名稱에 表示된것과가티 世宗께서 아버님太宗을 모시기爲하야 지은宮이잇섯고 그後 壽康宮터에 세운 昌慶宮은 成宗께서 할머님 어머님및 叔母님 三王后를 모시려고 지은宮이엇섯다。그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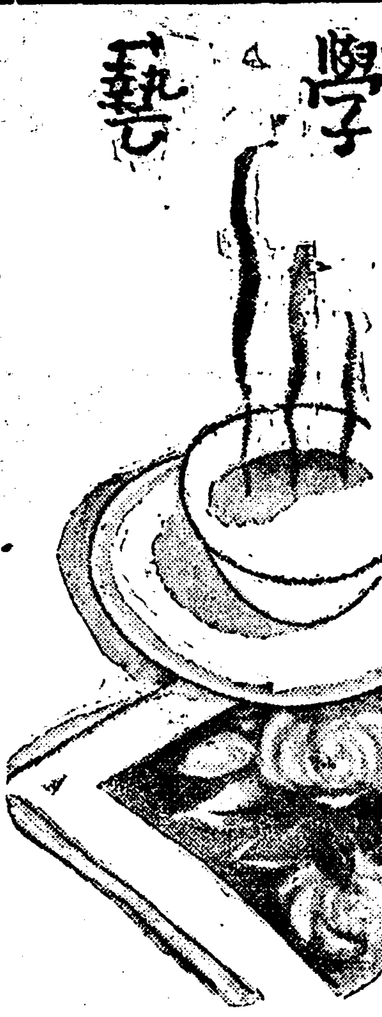
壽 康宮이라 昌慶宮이라하면 王室의 孝道를 象徵하는由緖깁흔 故宮이것을 생각케한다 時異事變한 오늘날에 와서는 이昌慶宮이 植物園이되고 動物園이되어 春夏秋冬 어느때나만흔觀覽客을 끌고잇다 每日幾千幾萬으로헤이는 男女老少가 드나들때에는 누구나 반드시 이弘化門으로 通過하게되는다 그러면우리가 이弘化門의 由來를 모르고잇는것이 어찌미하랴

첫재弘化門을 美術上으로볼때 그안에잇는 正殿인明政殿明政門과同一한 構造에 屬하는바 簡朴한듯하면서도 秀拔하고銳利한 神韻을가진하엿다 하거니와 弘化門이란 名稱은 成宗十四年創建當時에이宮의 모든殿閣門樓와함께大提學徐居正의 지은이름이다그리고 弘化門이란 三大字는

書 宗成宗年間의 名家인成任의 글시라한다 金秋史는 일즉 이弘化門扁額이 成任의寫임을 말하고 極口推稱하야 갈오되 「成任寫弘化門扁 大成殿扁 [illegible]……碩腴偉麗 非石峰可及……」이라고 하엿다 이로보면 五百年大家인 韓石峰도 이弘化門懸板글시에는 到底히 미치지 못할것을 斷言한것이 아니냐 만일 그렇다면 弘化門은 [illegible]의 手法뿐이 아니라 그[illegible]로도 京城에잇서서는 崇禮門의 글시와 아울러 가장貴州한名筆임을 알어야 하겟다 五大宮門額의筆者가 모다當時 名家이엇스니 昌德宮 敦化門額의筆者鄭蘭宗(成宗때)과 慶熙宮 興化門額의筆者 李伸(光海때)과

景 福宮光化門額의筆者 丁學敎(高宗때)와 및德壽宮大漢門額의 筆者沈[illegible]이 모다 그러치 안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글시의 品評에잇서서는 光化、大漢은아즉 덥허두고 가장오랜 敦化는 그當時에도 이미 잘못썻느니 엇저느니 하는 [illegible]을 엇스며 오즉坊間에서는 興化門額을 安平大君의 글시로誤傳이되어 밤이면 化字의筆光이 멀리 비치엿슴으로 夜照峴의 名稱까지 생겻다하며 壬辰亂때 化字가 총알에 마진後로는 그비치 업서지고 말앗다한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그것이 安平의글시임이 아니요 光海때 李伸의 筆蹟임을 알게되엇스며 [illegible] 드는것처럼 그리 훌륭한

名 筆도 아닌모양이다 그러나 金秋史의 品評만은 [illegible] 興化門額에 對해서만은 一[illegible]의 [illegible]도 넉넉이 짐작할것이 아니나 그러치만 秋史로서도 오즉 崇禮門額과 弘化門額만은 極口推稱하엿스니 『申成諸公의 所書門榜이 雄奇古雅하야 크게 [illegible]法이 잇다고하엿다』 申成諸公은 申檣과 成任을 이름이니 成任은 [illegible]兄으로 風流文雅가 當時에 冠絶하든 [illegible]家이다 우리는 弘化門으로 드려갈때 [illegible]와 함께 額字의 美에 對하야 [illegible] 過해서는 아니되겟다 一說에는 弘化門額이 仁祖때 李[illegible]의 글시라고하나 밋지못할말이다。



學藝

自由主義文學批判 佛文學과自由主義【2】

李軒求

十九世紀以後 오늘까지의世界文學은—蘇聯을除하고—브르조아지—의 文學이라고 稱할수잇다그러고 이文學은 浪漫主義、現實主義、自然主義、象徵主義、國際主義、心理主義、表現主義、超現實主義의 思潮로서 相反相合하야 한個의文學史를形成하여왓다。

文學 여러한 여러가지流派와主義가 文學의實踐(作品又는文士의行動生活)에잇서서 무엇으로더부러 人間生活과現實과의交涉을 가저왓는가? 特히 어中에서도 佛蘭西文學은 어떠한自由의史程을 밟아왓는가?

一、浪漫主義와自由

自由라는意味가 浪漫主義에서와가티 激烈하게 高調된때는업섯다。그들은 爲先感情、情熱의完全한解放을爲한自由。이것이 그全的課題엿다 그리하야 이問題는 드되여

戀愛 의自由라는 테—마의一面과 接觸하게되엿다。封建時代와가티 모든文化와生活이 階級的으로 制限되고 拘束바들때 當然히이問題는 封建的思潮에對하야 한個의巨彈이 되지안흘수업다。따라서 戀愛小說이라는것이 單純한 甘美와 感傷에서떠나 한個의文學上 새精神(에스프리)을 形成하엿다 佛文學에잇서서 이系統의小說은 『쟌쟈크·루소오』의 『新엘로이즈』에서 始作되엿다 이名作이 獨逸에건너가 더完成되고深刻되바테—레의 『웰테르의悲哀』를 나엇고 『바이론』의 『차일드·하롤드의巡禮』 『돈·쥬안』이되여 다시 佛文壇에 이두個의作品이 佛蘭西浪漫主義의

聖書 가되엿든것이다 作品의影響을 바더 또는그와前後하야 『세낭쿠—르』의 『오베르망』과 『방쟈망·콩스탄』의 『아돌프』와 『샤토브리양』의 『르네』『알프레드·뮈니』의 『차터—톤』『알프레드·뮈세』의 『世紀兒의告白』等이 그代表作이다。이作品에서는 戀愛와理想—自由意志와社會—形而上學的懷疑—이 現實과接觸하야 惹起되는 가지가지의悲劇을 그려내엿다 이戀愛의自由性은 아직도 幾存되는封建的家族制度와의相剋 反抗의諸悲劇相에서 靑年男女의自由로운 生活의憧憬과 그實現을 爲한苦悶과 그러한

現實 앎에서 跌蹉하는諸事實이 屈曲되고展開되여잇다 卽靑年의理想과 現實의重壓사이에서 그들은(佛蘭西浪漫派)『바이론』의 沒我的情熱을보앗고 浪漫的情熱的英雄인 『나폴레옹』을 崇拜함에서다 多分히非現實的夢想世界 自我를完全히 解放하는犧牲식히랴는殉情속에서生活하여왓든것이다그들은 나폴레옹의 英雄的理想과더부러 文學行動을 참게하엿다 그러나 奈翁의波瀾만흔一生과가티 그들이 人生에서찻는바 解放되自由는 亦是 幾多의波瀾을 겪거왓다 이와同時에 現實은 逆轉되여 王政復古라는 政治的畸形態를

再現 식혓다 이에公憤한 浪漫主義者들은 次次로 空想的感傷的社會主義傾向을 띄여왓다 그러나 遠大한理想은 그實現까지에 가지가지의 險難과遭遇하게되엿든것이다

二、現實主義와自由

一八四〇—七〇年代의 佛蘭西는 政治的으로 나폴레옹三世의 쿠데타와더부러 第二帝政이實施되고經濟的으로는 近代資本主義의産業的發達이 全盛期에 이르럿다 여기에잇서서 人間은 思想的自由 行動의自由와가튼 大革命時代의自由精神은 完全히 現實압헤重壓되고마럿다 이러한矛盾가운대서 知識階級은 空想的理論에서떠나 이機械文明의 諸矛盾相을檢討, 批判하라는 科學的社會思想이 胚胎되는時代를지게되엿고 또다른一面에잇서서는 物質—金錢—의

人間 生活우에 餘地업시 橫暴의度를 더해가는現實압헤 다닥치게되엿다 純情的理想에對하야 또는殉情的戀愛의夢想에對하야 품어오든 浪漫主義者의精神은 무서운暗濾속에 啜泣하게되엿다 사람은 精神的理想에 對하야 보다도 目前의現實問題—卽愛慾의 葛藤 金錢을 싸고도는 家庭的 平和의攪亂, 모든 欺瞞的 社會政策 새로운 賃金制度의 契約미테 다시 奴隷化하는 人間群像을 보앗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意識的으로 覺醒되는 階級에까지는 到達하지 못햇다。그래서 이때에 佛文學은 暫時 自由의부르지즘에서 떠나

反映 되는바 社會現實을 客觀的으로 描寫하는데 이르럿다 이리하야 『발자크』의 뒤를 이어 『플로베—르』의 諸作品과 『小뒤—마』『오—지에』『사르두』와가튼 브르조아 戲曲이 創作되엿다 現實의 醜에 對하야 自由를 일흔 人間의 消極的 如實한 表現에서 始終하라는것 말하자면 이時代는 十九世紀以後의 佛蘭西에 잇서서 寶로冒瀆되고 逆轉되바 無言의 蹶起時代 自由를 剝奪當한 時代이다。『빅톨·유—고오』의 國外追放도 이때의 일이요、感傷的社會主義作品을 쓰든 『죠르쥬·상드』夫人도 落鄕하는바 歸道으로 도라갈도 이때엿다 文學者는 오직 文學의 洗鍊과 또는

事件 의 興味만에 通俗化의 低級化하라는 傾向까지 보여지게 되엿스니 前者는 『플로베엘』에서 차저볼수잇고 後者는 當時의 劇作家中에서 發見할수잇다。그러나 世紀의 正當한 發展이 人爲的으로 萎縮된 그 反面에 爆發되라는 새로운 勢力이 醞蓄되여지는 事實을 어찌 默過할수잇슬것이랴?

꿈꾸는 初夏의『옷트』와 그들

꼿송이흔들리는…… 街路樹아래로……

—詩— 李揆元

봄 봄 봄
大地의 모롱이가 문허지면서
봄은 껍질깨트린 병아리처럼 뛰어나왓다。

◇

목 목 목 骨髓에 뻗치는 산과 벌판
봄의衣裳은 지금 저속에 가추어젓다
아직도 陰鬱한 곳에서 몸서리치는자 잇다면
빨리 거러넘치는 街路樹를 마시렴。 黃風。
黃風은 시내ㅅ가으로 언덕으로 꿈쩍틈으로
또 城ㅅ돌미트로 철하로 쓰러기웃속으로
秋秋한 날애를 치며 떠돌아단인다
植物과키스에 눈감은 大地。
구비치는 大河여
너는 十二月의結締으로부터 解放되지오래다
오직 明朗한 거믄고를 타면서
흘러갈 뿐이다 머얼리 南海의 품속으로。
綠色의 森林이여
너는 貧血의睡眠으로부터 눈든지 오래다。
오직 축축한 입새들의 合唱을 따라
춤출뿐이다 멀리 蒼空에 나붓기며。

◇

하것만 봄아—
오늘 곱은어머니들은 너를반겨 술을 몰으고
그 푸른물을 마시기爲에 잘리엇나보다。
봄이오면 꽃이오면 城門이 열리다기에
[illegible]을 허비면서 우려러 보드니만。
오늘、파리한鋪道의人生들은 너를迎接할술 몰으고
그 風景을 듯기전에 도라서나 보다。
봄이오면 봄이오면 [illegible]이 배섞된다기에
입술을 할트면서 焦燥하드니만
아하 꼿송이 흔들리는 街路樹아래로
굴러가는 수레에 饑童이 느리웟고
지나가는 行列隊는 머리만 숙엿다。
消息이여 悲歡여 北風에 끈허젓든 紡車아
吹風에 떨든 思念아
너는 잘든時節과 함께 사러지렴
그리하야 봄의 즐거움을 마음ㅅ속에도……

◇

봄·봄·봄·
大地의 모롱이가 문허지면서 봄은
껍질 깨트린 병아리처럼 뛰어나왓다。

1935·4·15 改稿

隨想 서울의面貌 3

金復鎭

西洋窓門에 물르든 카—텐가튼 것을 치마라고 해입고서 굽놉흔구두를신고 허리를 한느러거리면서 걸어가는女性이 눈압헤 나타난다。조그만 發動船이 바다우에 떠서 左右로動搖하는모양과 恰似하다。寫實로 이光景은 驚異할만하다。『驚異는 哲學을 낫는다』는命題가 또 『必要는 發明의 어머니』라는 格言의 寫實性이 새삼스럽게 미터진다 흥두깨가튼두 다리의 아래에는 뒤ㅅ굽치가곱고 코끗이 외씨가티 뾰족한구두를신고서 입속이 野蠻의風習이라고 嘲弄한는淸國女子의 纏足하는 古風을 이제야輸入하야 文明이라는 假面과 流行이라는 虛榮에 傳染病과가티 急速한템포로 새로운 社會事象을 이루엇다 이들新女性에게는步武를整調하는새로운方法이 絶對로必要한까닭이다。街頭에 分列되新女性들의 二十世紀的曲線行進은 確實히 現代女性社會의 福音이아니면 안될다。

「一國의 王이 되기前에街頭의 王이 되라」고 그누가말햇다。政權을 갓기前에 街頭를 支配하여야만 한다는것은 平凡한 政治原論이라할지라도 街頭의 王者는 누구나고 뭇는다면 二十世紀步行曲線에 洗鍊된 女性들이라한다。사람머리의 數爻로써 最高決定을 맷는것이 代議政治의 要諦이라면 다시새로운理論을 組織할것업이 別다른 槪念을 導入할것업시 오늘의 街頭의 王者는 女性일것이다。『여기가 乳房이고요』『여기가 다리입다』라고 徵細히 說明하는 것이 現代女性의 衣裳이 가지고 잇는 宿命이라면, 네활개를 벌이고 [illegible]를 다가티 抱擁하겟다는 틈을 貴婦人과 公娼과 黃金과 權利에 빠진 買人 주머니를 秘藏한 인경덩어리만치 불룩한 배를 제대로 드러내노흔것이 紳士의 禮服이다。埃及卷煙을 피우고 黑西服金時計를 차고 美國스타일의 [illegible]을 입고 米國製의 自動車를 몰고다니는 紳士의 머리ㅅ속에는 무엇이 들어잇는지 [illegible]、正히、世界生活을 支配하는것만은 異論업는 事實이다。

할로우 짝퍼—아무개 라는말이 金니좋으로 거침업시 흘러나오며 李先生 金先生이라고부름을 능청스럽게 부르는것이 紳士네의 禮節이고 三枝槍과 洋刀를가지고 소리업시 닭고기를 버여먹으며 한잎이나되는 왜면을 저까락하나로 操縱하는것이 紳士들의 食道德이다、[illegible]가에 안저서 [illegible]으로 消日하고 妓生의무릅을 비고情熱을呼訴하며 新聞와、題目만이라도 대충훌터보는것이 가장큰 日課이며 劇場에서 코를고는것이 社交의重要한 部分이며 아이스크림에 消化不良이 되게되는것이 友愛의 表現이다。

『創造는 模倣의交流이라』면 食後에 無花果먹는法을 흉내내고 계집의 허리를 끼고서 짜쓰를 맛추어 몰어다니는것을 본뜨고 言語를 가져오고 味覺을바꾸어 노하 世界生活을呼吸하고잇스니 이들의 生活相도 또한 模倣과 模倣의 交叉로 얼키어진 새로운 創造의 하나가 아닐가。

黃金의 獨裁官이며、文明의 享樂者인 紳士의 무리는 料理집에서 料理집으로 巡禮하기에바쁘고 妓生의집에서 妓生의집으로 愛情의 配達에 바쁘고 株主總會에서 株主總會로 分[illegible]돌다 투기에 바쁘고 그리고 남어지 時間에는 서울에서 서울로쪼라 이쁘하기에 바쁘다

黃金의 王座에안저서 天下를 呼令한다。文明을支配한다。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指揮한다。世界의 創造者이며 世界의 司敎者이며 世界의 審判者이라는 紳士들이 우리가찾는 서울의 方面을 알고잇슬가?

短篇小說 初戀★……(5)

오올더스·헉슬레이 作　高涓民 譯

민니와돌이서 울방아간에가잇기를 서든것은 휴버트엿다。어느 친구가 한번 연구회사람들과가티가서 한동안 머무른일이잇는곳이엿다。안윽하고 인가를 떠러저잇기때문에、평장히 적막한 곳이란것이엿다。적막하고는해도 물방아간에 특유한 적막이엿다。산우에서 밤을 맛는것가튼 적막이안이고 우뢰소리와가티 엄청나게 큰 소리의 계속으로된 적막이엿다。매일아침아홉시가되면 물방아바퀴는 돌기시작하엿다。그리하야 그진동은 종일토록 그치는일이업섯다。처음 잠간동안은 무섭게 싯거러워서 도저히 견대기 어려운것이엿스나 조곰만 지나면 곳귀에 익어버리는것이엿다。그소리는 중단되는일이 업기때문에 놀랍만치 풍성하고 깁흔 적막이 되는것이엿다。

물방아간뒤에 조고마한 정원이잇섯다。집과 창고와 벽돌담으로 세편은 가리워잇슴으로 한편만이 시내물을 향하야 튀여잇섯다。민니는 란간에서 흘러가는 물을 내려다보고잇섯다。묵경은 등에 화살 문채가잇는 감색의 배암가타다 기어가듯이 밋그러지듯이 도망질치듯이……물은 영원히 흘러가고잇섯다。민니는 거기에 안저서 기다리고잇섯다。히론둔서란 기차는 정심때를엽마다주엇다。우오쳇트에서 먼길을 오는 휴버트는 여섯시전에는 도착하기가 어려울것이다。물론、민니와 눈아래를、타임과가티、운명과가티 새로닥칠 급격한 사건을 향하야 부드럽게 흘러가고잇섯다。우태한 진동이 어[illegible] 정원안에서 는 그것은 곳 한업는 적막이엿다—이 그를 외워싸다。그러나 그소리가 벌서 귀에 익은 그의 마음은、그 싯그러운 잡음소음을 맛치 고기가 물속에서 헤염치듯이 왜다갓다하고잇섯다。란간저편으로부터는 물의 랭기(冷氣)와풀냄새가 떠올라왓다。그러나 일단 정원벽을 돌아다보면 꼿과 익어가는 과실향기가 그의 숨의 뜨거운향기가 그의 숨을 막엇다 오후의 해빌속에서 세상은 모조리 익어잇섯다。헐어진 붉은 집은 떠러진 서양오얏과가치 익어서 누어잇섯다 벽돌담의 따뜻한 벽돌우에는유도(油桃)가 조심스럽게 단정히 척형(磔刑)되여잇섯다。당은 유도보담도 더 무르익어잇섯다 그러고 끄님업는 진동이 맨드러내는 보통정적보담 훨신 풍성한 그침묵은 마치 익을대로 다익어서지고 복송아와가치 둥글고 생명과 행복의 즙(汁)을 철철흘리면서 갈망하는 낫밧에게 베여먹히기를 기다려 매여달려 잇는— 그러한 도가탓다。

이 과실과가티 무르익은 세계의 심장에서 민니는 기다리고 잇섯다。물은 바위를 향하야 흘러가고잇섯다。부드럽게、부드럽게。——그러다가 물은떠러젓다。물은 도라가는 바퀴에 부딧처 산산히 부서젓다。그러고 타입은 압호로 조용히 맛다 그러저흘러갓다。민니의 생활의 모든 순조로움을 부쇄할 사건을 향하야 조용히 흘러갓다。『당신이 정말 그사내하고 가치자고싶흐면 가차 자구려。』 감히 입에 담지못할 란폭한말을 잘하는 헬렌의 맑고 곱은 말소리가 들리는것가탓다。다른사람이 그런말을 햇다면 그는 그방에서 뛰여나와슬것이다。그러나 헬렌의 입에서 나올때는 엇저일인지 퍽 소박하고 무해하고 진실답게 들렷는것이 엇다그뿐만아니라 다른 여러사람들이——가정에서、학교에서 그가 이 들마나는 사람들사이에서——이야기한일、혹은 암시한일은 맛잘가지로 진실한것가치 생각되엿다。

海外뉴—스

六月一日부터 싸베—트藝術祭

레—닌그라—드에서十日間

오는 六月一日부터 十日까지 十日間 『레—닌그라—드』에서는 싸베트藝術祭가 開催된다고한다 이리하야 『인·추리스트』(싸베트觀光局)에서는 觀光客을爲하야 시베리아鐵道의 乘車賃을 往復모—다半額以上으로 割引한다고한다。一年中에 第一氣候가조흔 季節에 藝術祭의 觀光과同時에 싸베—트國內의 各地工業、農業、社會生活 其他一般視察에 가장 便利하리라고하는데 싸—베트觀光局 日本支局代理店인 東京神[illegible]

黑風【27】

韓龍雲 作　金熊超 畵

[illegible]

지주와소작인(二七)

한숙의아들은 쓰라린마음을 안은채로 서호의 품안으로 드려다보앗다 무엇보다도 몸에비치는 자기의 그림자를 먼저보앗다 한숙의아들은 자기의그림자가 부끄러웟다 자기는 돈이업는까닭으로 애인이라고 하나니보다 안해라고할만한 영애를 무리한지주에게 빼앗기는것이 분한것보다 차라리 부끄럽다고 생각하까닭이엇다 서호의품속에는 수가엡는 고기들이 놀고잇섯다 한숙의아들은 그고기들이 부러웟다 그고기들은 먹기위하야 농사도짓지아니하고 입기위하야집삼도하지안는다 언새든지 출넝거리는 말근물이 그들의밥이오 그들의옷이엇다 그리하야 고기들은 지주에게 압박을밧을리도업고 도만한사람에게 천대를밧을리도업섯다 한숙의아들은 사람으로서 고기마도 못한것을 부끄러하얏다 한숙의아들은 고기가되고십흔생각도 잇섯지마는 그것도 잠시의 허된생각이엇다 한숙의아들은 고기들이 부러워서 고기들에게 가까히하랴 하얏지마는 자기가 가까히갈수록 고기들은 점점 멀리다라낫다 한숙의아들은 다시 고기들을 원망하고 집으로 도라오게되얏다 도라오는길에 몃번이나 항수가는길을 도라보앗지마는 영애의교군은 볼수가업고 도라가는 쪼각구름이 건느는나루를 가로막엇슬뿐이엇다 한숙의아들은 자기의동리압헤 다다르자 다시 거름을멈추엇다 그것은 영애를 생각하야서가아니라 동리사람을 대하기가 부끄러운 까닭이엇다 모든사람이 자기를보고서 손까락질하고 비웃을것가치 생각되얏다 그리하야 한숙의아들은 도로 서호가으로 나와서 번민에 싸여잇다가 해가저문뒤에 고개를숙이고 집에로 도라갓다

영애는 한주에 가까히올수록 뒤의스통보다 압헤걱정이 만하게되얏다 영애는 작변가올에 은석이가 자긔집에 왓슬때에 은석이를 지나가는눈으로 보앗든것이다 은서은 양도야지처럼 살이지고 살빗은검엇다 아래톱이 축처지고 찌어진눈은 뿔그스름하얏다 개지름이흐르는 얼굴에 힐뚝힐뚝한 구레나룻、그리한모든 아름답지못한 은서의모양이 영애의눈압헤 반반히 나타낫다 영애는 은서의모양을 생각할때에 소롬이찌츨마치 징글징글하고 무서웟다 또는 여남은이나 되는 처첩의 질투를 엇지밧어내나하고 생각할때에는 부자의 첩이되야서 호강하겟다는 모든 생각은 찬재가 되야버리고 가날핀몸으로 놀근황소가튼 남편을 엇지겪그며 약한마음으로 여러시앗의 독한투기를 엇지방을가 하는생각을 할때에는 천근이나되는짐을지고 어두운밤에 호랑이굴로 드려가는 늦김이 낫다

영애는 은서의집에 이르렀다 교군꾼은 밥마추는 거름으로 『문지방이다 조심해라』 『아라차렷다』하고 대문을 드려가더니 안마당에 이르러서 『노아라』『놋는다』하는 교군꾼들은 교군을놋는다

영애는 수줍음을 이기지못하면서 교군에나섯다 난간놀의지하야 안저서 빙그레웃는 은서은 몹시도 영애의눈에 흉물스럽고 징글징글하게 뵈엇다 좌우로 느러서서 피피우스면서 속살거리는 은서의첩들은 영애를 조롱하는듯하얏다 영애는 부끄렵고 무서운 마음뿐이엇다 녀자종은 영애를 인도하얏다 영애는 인도하는종을 따라가는대 몸은 한숨밧게 아니되고 다리는 천근이나되게 무거웟다 『얼골은 해끄무레한것 갓고마는 조것이되야서 혈복숭와 가튼것이 조놈 귀청예잡어다논것처럼 어룽어룽한다 히히히』하는소리가 누구의입에서 나온줄은모르나 영애의귀에 들녓다 영애는 그소리를듯고 얼골이 다홍빗이되면서 등어리에 땀이흘넛다 영애는 어느방으로 드려갓다 그것은 자기의처소로 정한방이엇다

SA—10

サッポロビール
삿 뽀 로 삐 — 루

東洋第一의大工場으로 最新의 設備와優良한 原料를 가지고 精誠것釀造한 近代人의嗜好에 가장 適當한……

삿뽀로삐—루는 姉妹品인 아사히삐—루와 갓치 全國的으로 多大한 信用을 엇고잇습니다。

アサヒビール
아 사 히 삐 — 루

最高級淸凉飲料水
三ツ矢サイダー
リボンシトロン

朝鮮麥酒株式會社

胃腸榮養

錠劑

わ 와 か 가 も 모 と 도

愛兒の健康を護るもの

어린애의꿈나라를 직혀주는것!

무럭무럭며오른저구름
젓빗과가티새하엿네
번쩍번쩍빗치는햇님도
둥구런錠劑わかもと도
어린에가조와하는金빗

팔랑개비는뱅뱅돌고
綠葉에부는바람시원하네
펄펄나는어린이날깃빨밋
錠劑わかもと를늘먹고
애들의두뺨은붉은사과빗

錠劑わかもと는金빗
배압허서울때에도
입에너며부드럽고
슴슴언이풀여서달금하니
애들은식식잘도잔다

애기들이꿈을꾸면
둥그런藥은낫낫치
金투구에빩안갑옷입고
녕날부서운장수가되야
어린애들을직혀준다

乳幼兒の正常なる發育の爲めに

乳 幼兒의發育의良否는、그體重增加曲線에나타난다。그曲線은體重增加의比率을、圖表에表示한線으로、健康兒는、出生時부터 三個月間은一日平均三十瓦前後의增加量을보고線은急激히上昇하나、다음三個月間에는 조곰緩慢하게되며、또다음의三個月間은 一層더緩慢하게되여서 一日의平均은 約八瓦에不過하게된다。

그러나 右曲線이標準을떠나서 急激히上昇하던지、或은同一線上에停止하던지하는것은發育不良으로、病에걸리기쉬운兒孩가될念慮가잇다。

體重增加、曲線을左右

할것은、主로水分의沈着如何에依함으로、乳汁에만흔水分이包含된것은、이런原因에잇스나、水分은同時에、一定量의 含水炭素를必要로하며 含水炭素는또는、비타민B를가짐으로有效하게利用되는것이다。

그러나 朝鮮人의主食이되여잇는白米中에는、甚히豐富한含水炭素가包含되엿스나 비타민B가不足함으로 充分히利用되지못하는點이잇서、乳兒發育障害은、거이비타민B의缺乏에잇다。

비 타민B는、所謂複合體이며其中에는五種以上의 다른要素가包含되여、그것들이全部具備되지못하며完全한能力을發揮할수업는것도 勿論이나日常食料品中에는、이것이完全하게具備된것은便히稀少하고、單只純良한 휘ー쀡菌이가장豊富하게包含되여잇슴을發見할수가잇다『錠劑わかもと』는 數百種을헤일수잇는휘ー쀡菌中

가장醫藥的價値에豐富

한菌種을 選擇하야、專賣特許의 工程에依하야、完備된大工場에서製劑된것임으로비타민B複合體는 勿論多數의活性酵素、榮養素호르몬等이包含되여、發育狀態의不良한乳幼兒에먹이면、그胃腸機能을促進식혀、正當한發育을할수가잇다。

母 乳가不足할때는 主로牛乳를常用하나牛乳의成分은 人乳에比하야 蛋白質이만코、脂肪은大略갓호며、含水炭素는大端히稀少하다、그래서牛乳에飮料水를加하야蛋白質을稀薄하게하며、含水炭素의 不足을補充하기爲하야、白砂糖을加入하나이때는、비타민B가甚히不足하게된다。

米國有數한小兒科專門醫인메ー시ー氏의研究에依하면、乳汁中에脂肪과含水炭素는

恒常拮抗의關係에

잇서、脂肪1에對한含水炭素2의比例를직힐必要가잇스나、그關係가틀니면、發育의正常을期할수가업는것이다、그러나牛乳等의人工哺育料에잇서서는 右의比例가잘되지안음으로 그正常의發育은困難하야、世界的高率에잇는 日本乳幼兒死亡數의大半은、이人工榮養의營養障碍에原因된다고한다。

아 때는 哺育料中에『錠劑わかもと』의 一二粒을混合하여먹이는習慣을부치며 榮養障害을防止하며順調로운發育을볼수가잇스나 이것은『錠劑わかもと』가 脂肪、含水炭素와對比를適當하게是正하는 作用이잇슬뿐더러、리진、히쓰지진等의、成長發育에必要한아미노酸、구리고젠、칼슘等牛乳中에不足한成分이、가장豊富하게包含되여잇는理由이다。

虛弱乳幼兒

1、胃腸의機能을强壯하게하며消化不良을防止함
2、綠便、粘便을普通便으로하고鼓腸、便秘을除去함
3、食慾을增進케하며貧血、衰弱을恢復함
4、特히虛弱人榮養兒의健全한發育을助長함
5、乳汁의分泌을助長식히고母體의衰弱을防止함

004268

無代進呈!『御婦人方必讀の 婦人一生の顧問』

全國藥店에서『錠劑わかもと』一瓶 사실때마다 松波模樣容器 添付

我產婦人科界의權威醫學博士中島精先生에請하야、婦人들과어린애들에게만흔病의症狀、病理、治療法等을最新의學理에基因하야、쉽게記述하도록한家庭에곡업서서는안되는册子를現下全國藥店에『錠劑わかもと』一瓶사실때마다携帶用의美麗한金銀蒔繪容器와가티無代進呈中임。

藥價低廉 • (三百錠入) 壹圓六十錢

(三百錠은大人에는廿五日量・十歲前後의兒童에는約四十日量・五歲後에는五十日量・三歲前後에는六十日量에該當함

株式會社 榮養と育兒の會

發賣元・東京市芝公園

電話芝(代表)一一七五番 外六本
振替口座東京一七〇〇番

商況欄읽는法

崔晉夏

▲期米編(上)

◇本期總計……本欄總計는取引所에서 一年을上半期 下半期에 分하야十二月부터 翌年五六月까지를 上半期로하고六月부터 十一月까지를下半期로定하야 賣買의成績을보아 株主의 利益配當을하는 關係로上半期에는 上半期의賣買高를決定期인 五月三十一日까지累計하고下半期에는 下半期의賣買高를決算期인 十一月三十日까지累計하는것이다 그리고本期라는것은 上半期가되든지下半期가되든지 『當期』를말한것이며 總計는 그날그날의各限賣買合計를 累積한것이다

◇取組高……此는本欄을通하야 旣히 說明한바잇슴으로更說하지안커니와 當中先三期共히 新甫發會의 初日부터 當限의 最終納會에까지 그取組의增減을따라 每日午前場을마친後에 取引所로부터 計算發表하나니 取組高는 市勢의變動과實質의 如何에依하야 줄엇다늘엇다함으로 賣買高와如히 累計를하지안코 그增減에依하야 加算又는 減算을하게되는것이다 假令三月一日에發會된五月限의 取組高라하면三月(先限時代) 一日부터 四月三十一日까지(中限時代)及五月(當限時代) 繼續的으로 計算을 하는것인데最後에 남은數字가 即受渡行數가되는것이다 그러고 當中先三期에分하야나타나는 그數字는 各限共히 各取引店의 取組高를合한것이다(期米編第八回參照)

◇賣買高……此亦旣히 解說하엿슴으로 그意義는 更說하지안커니와 當中先三期의 賣買高가 各勢合으로 各限을區分하야 表示한것이다(期米編第八回參照)

◇朝鮮內各地期米……朝鮮의米取引所는 朝取期米外에釜山、大邱、群山、木浦、鎭南浦等五個所가잇스니 此五個所는元來延取引所로서 朝鮮取引所令에依하야 昭和七年一月一日부터定期取引所로許可되엿스며 組織은會員組織인데 此等取引所도 限月을 三個月로 定하고 當中先三期의賣買를 行한다 그러나 先限만을 本欄에 取扱하게되엿스며 賣買의方式은 每節單一制의公定賣買를하는데 節과節사이에 「자라바」賣買(連續賣買)를하는것이 아니라는 그數字는 各限共히 各取引店의 取組高를合한것이다 그러고 賣買의節數는 說明하지 안어도 每日數字를 取扱하는 本欄을 通하야 넉넉히 알수잇슬것이다

◇大阪期米……日本內地의米取引所는 十九個所(株式會社十八個所 會員組織一個所)인데 就中 大阪期米 卽堂島取引所는 明治九年九月二十五日에創立된 株式會社로서 日本內에서 가장 歷史가 깁고 權威잇는 取引所이다 賣買의 節數는 前場十節 後場六節로하야 前場은 午前九時부터 同十一時 三十分까지 後場은 午後一時 三十分부터 同三時까지인데 當中先共히 賣買不成하는일은 업다

◇引勝氣配……此의 解說은 期米編 第九回에 參照하기로하고 大阪期米後場 數字欄外에 每日 引勝氣配를 記入하게된것은 朝取期米의 市勢는 大阪期米의 市勢如何를 따라 變動되는데임으로 據事마다의 當業人氣가 어떠하다는것을 알리기 爲함이다(大阪보다도 먼저 創立된 取引所는 明治七年 八月十六日에 創立된 京都米取引所이나 同所의 市勢는 本欄에 잘 取扱치안는다。)

◇大阪期米取組……此數字欄에는 當限中限先限을 列記하고右便으로 賣買高라써어잇스나 實際에 分하야 賣方、買方、取組라고三段에 分하야 記入하고 賣方左便으로 列記한 數字는 各取引店의 賣方數를 表示한것이요 買方左便으로 列記한 數字는 各取引店의 買方數이며 取組의左便으로 列記한數字는 各限의總取組高이며 賣買高는 當中先三限을 通한 一限入協賣의總賣買高이다 (續)

蓬萊米移出續增은 朝鮮米의移出을威脅

第一期作一割五分增收豫想 今後形勢輕視禁物

朝鮮米移出의調節對策이 過般의自治管理案流産으로 平穩한狀態에 잇는것과갓다 그러나 實狀은 前途에 一層多端한問題가 남어잇는것이다 即 今年農形如何와 新穀期에 再次擡頭될것으로 보는때문이다 그런대 近年에잇서 臺灣産出의蓬萊米가 日本內地로 移出된數量이 激增되야 三四百萬石의數字를 나타내이고 一面으로는 그品質이 年年改良됨을따라서 朝鮮米의日本內地消費量을 蠶食하는傾向이 漸次濃厚케되다 더구나 今年의蓬萊米作은 昨年에比하야 一割五分增收(第一期作)豫想이라고함으로 今年移出은 四百萬石以上을突破케될는지모른다고한다 그러고 이蓬萊米는 年兩期作인만큼 移出에잇서 一時殺到케 안되는關係上 그趨勢 朝鮮米移出을 阻止케하는結果가 될것이라는 念慮가相當히 아는터이라고한다

年年改良이顯著 ▲…山澤商工課長 談

蓬萊米가 아즉도 朝鮮米와가티 良品質에 일으지못하엿다 그러나 이改良은每年顯著하고 딸아서 그移出數量이 相當히 增加가되여가는마큼 朝鮮米의 移出上 압흐로威脅材料가 될 念慮가多分으로 잇는것이 事實이다

昨今粟價急暴騰

農家需要量은一層激增 今後趨向如何重視

요즘의 京城市中粟價를 보면 滿洲粟이 百斤에 十圓三十錢으로 一週前價에 比하면 六十錢高요 今年中低價 八圓八十錢에 一圓五十錢高이며 天津粟은 九圓二十錢으로 一週前價보다 五十錢高 또 今年中低價八圓에 比하면 一圓高를 나타내엇다 이와가티 粟價가 다시昂騰하는것은 朝鮮內農家는 漸次春窮期가 展開가됨을 딸허서 그需要가增加하지만 이것과反對로滿洲의 昨年凶作으로 高價이며 또는天津粟의移入도 그곳의輸出餘力이 매우 적은때문이라고한다 그럼으로 今後朝鮮農家의 春窮期가 本格的展開가 됨을 딸허서 粟價의趨向은 가장注目을 끄는터이라고한다

全滿粟産額

昨年二千八百萬石 朝鮮輸入二千萬圓

【新京電話西通】全滿洲의昨年中粟生産高는 約二千八百萬石으로 그中約三百萬擔價格二千

金採鑛의 奬勵補助

昨年十六萬圓

朝鮮總督府의 金採鑛奬勵補助金은 九年度에 七十五鑛으로 그金額이 十六萬九千六百十八圓이며 十年度에는 六十四鑛으로 約二十萬圓에 達할모양이라고한다 更히 朝鮮에 附하야 輸出되엇다고

上旬對外貿易

入超千九十萬圓

【京城東京電話】大藏省發表에依하면 五月上旬對外貿易槪算調査는알에와갓다(以下單位千圓)

輸出	六五、七〇三
輸入	七六、六三九
合計	一四二、三四二
入超	一〇、九三六
一月以後入超累計	一八八、七一〇

輸出增收入減

【京城東京電話】今旬의日本內地及外地의 對外貿易은 前年同期에比하야 輸出四百四十一萬二千圓增加이나 輸入四百七十三萬一千圓 減少로輸出入合計는 僅히 三十萬八千圓의 減少이며 一月以降의入超額은 一億八千八百七十一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四千二百十七萬一千圓增加이엇고 日本內地의 上旬의重要品貿易은 輸出에잇서도 大體增減의顯著한것이업고 他方輸入에잇서는 機械類鐵類、石油及重油等이增加되엇스나 棉花는數量에잇서 減하고 羊毛도亦減少하얏다

日米爲替市勢反撥

【京城九日發聯合】九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八弗六十二仙으로五仙高 買二十八弗五十九仙으로五仙高

"米生産費調査會"

開催前에各委員聯合協議 朝鮮側方針을樹立

休會될지난 外地米生産費調査會는 五月二十日부터 開催될豫定인데 總督府는右委員會의開催에압서 朝鮮側委員인 有賀殖銀頭取、田淵東拓理事의兩氏를招하야 十一日午前九時부터 農林局長室에서 矢島農林局長、山澤農産課長其他關係官이 出席하야委員會에臨할朝鮮으로서의方針을 決定하기로되엇다 今回의委員會는九年度産米의生産決定을 行할것으로 그決定은直時法律的適用을受치안트래도 將來米穀政策이 樹立될境遇 最重要한基礎材料로서 取扱될것이오 昨年來의 米穀對策調査、生産費調査兩委員會의通常議會를 通하야 論議의中心이 될 事實로推하야 今回도 相當히激烈한 論戰이 展開될것으로 보인다 右委員會에 出席키爲하야 渡東한 朝鮮側委員及幹事는 左記四氏라한다

▲委員 有賀殖銀頭取 田淵東拓理事 矢島農林局長 ▲幹事 山澤農産課長

中國金融恐慌 繼續의狀態

惡材料山積의關係

【上海十日發聯合】中國의 金融恐慌는 今日까지實施한 中國政府當局의 모든對策도거의 何等의效果가업는 同時에 前途依然히暗澹한모양이다即

一、政府의 所謂健全通貨政策의措置의 根本에잇서 一種의인푸레인것
一、宋子文氏의中國銀行入은 實은同行의 實權掌握에잇는것
一、外銀側의「모랄사포트」가嚴守되어도 이로서銀의輸出을 制限치못할것
一、貿易入超의 巨額인것等의惡材料에依하야 一般의貨幣에對한 不安이 深刻케되어 銀의退藏이 漸强하고中央中國兩銀行에對한 一般의小口兌換이最近二週間內에 二千萬元에 達하얏스며 特히健全通貨의 本命인 宋子文氏一族이四月末에 三千萬元以上에 達하는兌換을 行한것이 一層貨幣不安에 對한一般民衆의 脅威를强케하얏다 그리고 一週間國內銀의昂騰에 依하야大幅의 增減이업고大約 三億二千萬元을 前後한다고公表되엇다

佛國金本位維持

商工會議所聯合大會席上 ◇…佛國藏相確言

【巴里九日發聯合】金本位危機의 調整에關하야 八日巴里에서 開催된佛國各地百二十六의 商工會議所聯合大會席上藏相「말단」氏는 佛國은金本位를踏止할旨를確言하야크게注目을끌엇다고한다

米國新銀行法 原案可決

【電通華盛頓九日發】米國下院은 九日新銀行法案을審議하고 共和黨側提出의修正動議를 否決하고 原案을可決通過하얏다。

肥料奬勵의 第二計畫協議

十三日總督府에서

十三日로부터 三日間總督府農林局에서는 肥料奬勵에 關하야 協議會를할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出席할사람은 各道肥料奬勵取締官또는 農會側이라고한다 그런데 肥料改良增施奬勵의 計畫은 昭和六年度의 創始된것이며同年度以後 十個年을 第一期로 總額三百萬圓의 國庫補助를 道費로 交付하고 當時緊急을 要한다고 認한 自給肥料의 增産을 圖키로하고 十年度에 堆肥 六十六億貫 綠肥八億貫의 肥料를 自給하라는것으로 그實施以來一般農家의 堆肥、綠肥等自給肥料의 增産이 顯著하엿다 딸아서 朝鮮內肥料消費額은 最近(昭和八年度)의 一肥料年度內에自給肥料一億五千八百萬圓 販賣肥料二千九百萬圓(昨年三千五百萬圓)計一億八千七百萬圓 右肥料가 農業經營의必要資源으로因한것이다 그러고 肥料代金은營農資本의主要部分을 占한것으로서 그品位良否는 購入方法의巧拙과 施用方法의當否等은 곳農家經濟에 甚大한影響을 밋치고 現在 農家肥料知識은 幼稚하야 肥料의廉價 供給과 施設法의合理化에關한施設에 不可缺로그肥料의施用法及購入法을잘못하야 損害가不少함으로 極力共同購入을 奬勵하는同時에 될수잇는대로 빨리 土性調査의實施와 配合肥料普及實施를 目下計畫中으로 以上과가티 協議會를 開催하는것이라한다

經濟界消息

○신디케ㅡ트銀行團入京期=渡滿中의 신지케ㅡ트 銀行團은 도라오는途中 京圖線其他東滿洲의新線施設을 視察할터인데 右는同線建設資金을 融資한關係上 滿鐵方面에서 現地情況을 案內키로된것이다 그리고 途中元山으로부터 金剛山을 구경하고入京하리라고

○商議役員會=京城商議에서는十一日午後二時부터 役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附議하리라한다

一、京城及隣接各驛의 貨物의擴張에關한件
一、工場用電氣動力의 料金遞減에關한件

金地金移出入額

釜山稅關通過高

釜山稅關을 通過한 朝鮮의金地金移出은 今年一月以後의累計는 六百三十八萬千百四十七圓으로 前年同期累計에比하면 二百二十六萬三千餘圓減 移入의累計는 五萬四千五百餘圓으로 前年同期累計에比하면 十七萬九千餘圓減이엇다

朝鮮石油會社創立

三萬株朝鮮內公募

日石社長橋本圭三郎、朝窒社長野口遵氏等을 中心으로創立準備中인 朝鮮石油株式會社(資本金一千萬圓、四分의一拂込)는 石油業令에依하야 設立認可를獲得하얏슴으로 創立키로決定하엿는데 總株數二十萬株中 十七萬株는日本內地와의 發起人賛成人이 引受하고 三萬株는朝鮮內에서 公募키로되엇스며 株式拂込은六月十日이고 同二十五日京城에서創立總會를開하기로 되엇는데 發起人은 野口氏外十一名이고 重役配定은 日本內地側四名朝鮮側十二名으로 內定하얏다한다

一割配當豫想

近間創立키로決定한 朝鮮石油會社의企業目論見書에依하면 營業開始初年度의 收支計算을보아株主配當은年一割豫想이라고한다

今日財界(十日)

◎米 (單位圓)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㊂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在來	[illegible]
一斤價	[illegible]
◎米中金融	[illegible]
金 銀	[illegible]
◎株 東 日	
大阪東新	[illegible]
大阪新	[illegible]
大阪鍾紡	[illegible]
大阪新株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公債	[illegible]

商況(十日)

株式 新低價後 引返

前場少堅

昨後場暴落의 뒤를이어 今前場은 米棉一圓五錢高로 綿絲、棉花等이 올느고 突込賣警戒로 下落하야 少堅裡에 後引에 比하야 東新七十錢高인 百四十五圓八十錢 日産十錢高인 九十三圓丁에 各大引되고 朝新二十七圓三十錢 一本이잇섯다

後場小波瀾

後場買方入超嫌氣가加하야 東新百四十四圓九十錢 日産九十四圓九十錢 大新九十二圓六十錢 朝新二十七圓二十錢에 日産만除하고 一齊底落寄後東新이또 新低價로떠러저 不勢이고 下溢更返大引

市勢갈팡질팡 內審會를期待

數日間紡績操短具體化를 傳하야 紡績株가 올느는等强調를示하얏섯스나 東新에는 東株가今期末의 五十萬圓銷却으로 原狀恢復이되겟스나 元來年의 大整理强行이 無理하얏섯든만큼 閉店할取引店이 또생길모양이라하며 今期配當도기껏하야 据置나되리라하며 그러치안으면 六分박게안되리라하야 業績에 樂觀할것이업고 來期에도 別로 期待를 가지지안으니 小市勢觀이 깨어저意外의大幅低落이잇슬지도모른다는것이잇슬뿐이니라 買方主力濟藤이 全部投出하고賣越하얏다함으로 買方의心的動搖는相當하야 內閣審議會에 鈴木總裁를비롯하야 政友會가參加를拒絶한것에 嫌氣를가저 投殘物과突込賣가나와서 期東新百四十五圓二十錢、日産九十四圓八十錢에까지 떠러지고나서 今前場引際는綿絲高에다가 內閣審議會組織이 거의決定되어 水野氏等의 政友脫黨、內審會入으로一聽그組織에잇서政府의 勝利로 歸한것의好感이나와 突込은 警戒되고 小戻步調이엇는데 上旬貿易千九十三萬圓이또 嫌氣되엇섯다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金融의前途樂觀으로 買物은警戒되고 市況은閑散이나마 內外債共히 底强形勢이엇다

▲甲五分利 不申▲一回四分利 不申▲二回四分利 不申▲佛貨 [illegible]

大阪株式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日産	四三	三八	五七、六九〇
建新	四九	四三	八七、一〇〇
大新	三五	五三	七七、四四〇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一百三十枚

▲大同電力新 六〇▲富士木材 七〇▲人造羊毛 三〇▲東北鐵道鑛業 三〇▲北鮮製紙 三一〇▲朝鮮製鍊 一〇〇▲證券金融 三〇▲合同油脂新 三〇▲東拓 三〇

남안사는때가 買進時만强氣論

新甫初에 먹저럼 好勢이던것도 十圓以上의暴落으로 保合原狀에 還元되고 말엇는데 이는要컨대 上進할餘價가 未熟한때문으로 다시待機할수밧게업고 別로앞할材料도업스니 目前은 保合時代라 보는便이 만어지게되엇는데 사서안될時勢이라하야 팔어서利를 가하면 그것도그럴것갓지안흔모양으로서 金融은緩慢하고 金利는低落이오 財界基本情勢에 何等變化가업는이때 株式은六分、七分利廻로低下되고 買氣가不進함은 웬까닭이냐? 幾多의 不安이 潛在하지만財界前途는 暗黑치안코 株式이總傍觀임은 웬일이냐? 그러하니 남이하지 못하는이때야말로 絕好의 買場으로서 남안하는짓을하야 보는것이 어떠나는 强氣論도 잇섯다

市場六感

株

昨日形勢로는 今前場에는 大暴落이나 잇슬것갓더니 內閣審議會組織으로 下止少戻▲投殘物과 好感으로 말하면 남어잇는지노모르나 위선內閣審議會에 期待를가저볼가? ▲佛國西藏相은 金本位維持를 言明하얏다는人氣이잇다 歐洲金不安도 이로서 幾分解消될세음이지▲某强氣의歡息一節을 紹介하면 『上期決算을보아라 減配하는會社는 하나도업다 金融은緩慢하고 貿易도조코 寧暴도 減할理萬無하야 好條件이이러케一致된데不拘코株式界만陷落되지 안으니웬일이냐 이까닭을아는者는對答하야달라』고 ▲六感子對答하되 「大市勢의前에는依例히低迷鍛鍊이오래며 揉合이甚한法이라 日谷深이면山高이라」▲萬人寄議對獨進은 반드시 大勢進行이아니오 衆惡를 쪼치여만한다는法이 업슴을말해둘가?

米

▲昨今의騰勢는 似而非的形勢로 示하엿스나 市勢 三十丁의反高를 示하엿스나 步幅이 원악좁은만큼 高價買도亦不安 ▲그러타고賣方針을 確據할수도업다 此邊에서十分 繰返하다가 어느편으로든지달아날때에 着手하는것이何如?

▲蓬萊米는 압흐로不遠한時日에 本格的移入을見하게될모양이니 弱材視하지안을수업지만 時日이갈사록在米의減退를見하게되니此는强材▲무엇무엇하여도本年은凶作後인만큼需給의榮觀을呈하지는못할모양이니 아리 天災戰에나들어가서 勝負를 決하기만不如 ▲昨今農家의 賣物은 稍稍細川光景이다 ▲그러나米價가 瓦落하는때는그賣物이杜絶될것으로 可期다 ▲今朝阪地三十圓十九錢은一段高價를示하엿스나 止際에〇八錢으로 反落하엿스니 當分保勢難免? ▲떠러지나 올으나그幅이크지못할것은 旣定事實찰아리小捌主義로나가는것이得策

朝期米 頭重裡에 强保

前場伸悩

昨後場暴落後 十圓十三錢止와 共히二十七圓八十四錢에堅保하고 當市勢는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十三錢인昨止同價의報를迎하고 二十七圓七十六錢인 九丁反落으로始을 始한後阪地六節二十錢까지 軟하엿스나 겨우六十八錢까지反撥하야 大阪止〇八錢의反落을入하야 七十八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强保

後場은二十七圓八十錢에 二丁高로 始場後四節八十五錢、五節八十八錢에 올느고 閑散裡에 七十八錢에 止하엿다

買氣稍漸滋生 一時的現象?

新甫七限이 發會한後 因而六十餘丁의反落을 告하엿스나 凶作後의 米價이라 買氣依然潜在하야 押目買와軟派의利退波及으로 深入을하지못하고 꾸준한步調로稍漸昂進하야 東京은不知中約四十丁이나 反騰하고 阪仁兩地는 三十丁內外의反高를 示하엿다 그러나 客月以來의 賣米壓迫의餘勢가아즉도未盡하야 高價를許하지안는만큼 可驚할暴騰도 업시此邊에서 一張一弛의保勢를繼續하지안흘가한다 米의事情은 大農家의態度는依然變치안코 賣惜不急하는中이며 集散地의在米는 日本內地의買注文에는 應하지안는다할지라도 精米의原料로 제법賣買가되어 滯米는迫迫을加하든 停滯米는거의消化되어 不遠한將來에 在米薄을 告하게될모양이다 그러나그反面으로는臺灣第一期早場米는 벌서 二千九百五十二石의 移入을見함에至하엿고 繼續하야 來六月부터 本格的移入을보게될것임으로 結局市勢는 一强一軟으로當分保勢로終始하지안흘가한다

農家態度注目

賣物稍漸細出

本月은 所謂梅雨期의 前月이오 또 農繁期를압헤두고잇다 그럼으로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强堅

定期의 小反撥로 低價賣는警戒되고 市勢는前日에比하야 五錢高의强堅한 場面이엇다 丸㊂三等二十七圓四十五錢 四等二十七圓十五錢 一等白米二十圓二十錢

仁川强含

移出向商談이잇스나 大口取引이업고 定期頑强

堂島前場引締

【大阪電話】中東側은 蓬萊米壓迫念慮와 靑田豫想으로戰線을延長하얏다 今朝로 政局安定豫想으로 買氣를注하야 正米賣行이잇슴과 相俟하야 高値買進으로引締하얏다

賣方・三木 中東側、正米側 播州側 朝鮮側 買方 神戶側 東京側 別派株式側 地場小口側 岡米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中	先	當	中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群山堅調

週替四輛、産地所持側이 適價에는賣隨하나 日本內地의買氣薄으로 總體的으로 傍觀하야 僅히期米採系가 買嫌하는程度이며 市勢는 五錢引締인 菱夕三等二十七圓八十錢 四等二十七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恢復

日本內地側으로부터 注文이多少잇스나 幾存米發表待로氣迷모양이오 高價買가不添하야 移出側이傍觀하고取引이閑散이나마 定期高에追從하야 氣配十錢高唱인 丸ホ三等二十九圓五十錢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南浦小高

雙方共히 動機待로 傍觀이오 氣乘薄場面이나 定期高에 追從하야 十錢高의氣配인㊉三等二十七圓九十錢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大邱引締

定期의小高를移하야 關側으로부터 入注가잇고 雙方의買氣과相俟하야 氣配十錢高唱이나 場面은依然賣物이薄하고 閑散의域을未脫하얏다 ㊂三等二十七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九十四錢

釜山釘付

依然倉入米의移出을警戒하고 雙方動機待의態度로 保合하얏스나 全市買氣가不揚하고 閑散場面이오 僅히入〇六叺의取引이잇섯슨데 ㊂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五錢

金融十日

◆海外經濟◆九日 [illegible]
◆日本銀行券◆九日 [illegible]
◆朝鮮銀行券◆九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十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지카고期麥◆九日 [illegible]
◆鰮油冲價◆ [illegible]
◆鰊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朝取取引員 京米穀商 金仁梧商店 株 期 式 米 玉

株式十日

◆朝取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鮮短期實物◆ [illegible]
◆東京代用日步◆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十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商品十日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